



남가주 맴머스캠핑 2박3일 성황리에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Labor Day 연휴를 맞이하여 남가주 총동창회 가족 캠핑 행사가 맴머스에서 개최되었다. 170여명의 동문들과 친지, 가족 여러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도시의 소음과 공해를 떠나 대자연이 경관을 이루는 맘모스 레이크 일대를 두루 관광하며 우애를 다졌는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New Shady Rest Park에서 공대 동창회 (회장: 권국원, 공대 69) 주관으로 BBQ Picnic이 있었다. 김병연 (공대 68) 총동창회장의 인사로 시작하여 민일기 (약대 69) 총무국장의 참가 동문소개에 이어 다음날 행사안내와 Activity group 담당소개가 있었고,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다. 또한 캠프사이트에서 캠프화이어가 있었는데, 김인중(대의협력위원장, 농대 74), 양수진(부서기, 간호대 80) 동문의 기타 반주로 싱어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문들의 노랫소리는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서 타오르는 장작더미의 불꽃을 더욱 환하게 하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다.

9월 6일 (일요일): 아침 8시

1. 낚시: 13명의 동문들은 이서희(전 총동창회장, 법대 70) 동문이 인도하여 Lake George에서 새벽 낚시를 즐겼다.

170여 동문 가족들 각종 액티비티 즐겨

2. 하이킹: 42명의 동문과 가족들은 Coldwater Campground South End Parking Lot에 모였다. High Sierra의 산전을 즐기기에 충분히 청명한 초가를 날씨였다. 김동근(공대 60) 동문의 인도 하에 Trail Head를 출발하여, Barney Lake (왕복: 6 마일, 고도: 10,200 ft)/Duck Pass (왕복: 10 마일, 고도: 10,797 ft)를 향했다.

Trail은 처음부터 오르막 길이어서 초행자에게 다소 힘든 편이었지만, 일단 Saddle에 오른 후엔 고도 Gain이 완만해졌다. Emerald Lake, Arrowhead Lake, Skelton Lake 을 지나, 10시 15분, "A" team의 목적지인 고도 Gain: 1,120ft의 Barney Lake에 도착하여 주위의 산천

을 감상할 여유를 가졌다. 잠시 후, 32명의 동문가족은 조정시(공대 60) 동문의 인도 하에 "B" Team의 목적지인 Duck Pass를 향하여 험준한 trail을 오르기 시작하여 (고도Gain:579 ft) 왕복 10 마일, 고도Gain:1,617 ft 의 장거를 완수하였다. Duck Pass에 오른 동문 중 일부는 John Muir Trail Junction에 다녀 오기도 했다.

3. 관광: 김창신(전 총무국장, 문리대 75) 동문의 인도로 52명의 관광팀은 Shuttle로 Devils Postpile에 도착했다. 천연기념물인 이곳은 10~70만년 전 용암 흐름에 의해 만들어진 현무암 기둥, 지구 생성의 신비함을 보여주는 지질학적 명승지 중의 하나인데 육각형의 원주 형태로 땅에서 솟아 오른 현무암 기둥들이 주위의 경관을 압도하여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다음은 Mono Lake에 도착했다. 바닷물의 염도보다도 4배나 되는 Calcium Carbonate Alkaline Water로 수심이 깊을 때는 Tufa기둥이 계속 자랐으나 물이 줄어든 현재는 수면 위의 Tufa기둥은 풍화작용으로 기묘한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어 대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13면에 계속)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을 갖습니다.

- | | |
|----------------------------------|--------------------------------|
| 1 남가주 맴머스 캠핑 | 12-14 지부: 뉴잉글랜드/남가주/북가주/샌디에고 |
| 2-3 대선 논설: 최용완/ 장석정/ 이서희/ 채병건 | 15 워싱턴DC/ 유희자 무용/ 사: 홍지복 친구야 |
| 4-5 모교 소식: 인터뷰: 김영란/ 다섯 가야금 | 16-17 특집: '내 가슴 속 한편의 책' |
| 6 동문동정: 제인김/ 김필립/ 박정란 | 19-20 심회진: 가을음악/ 신간: 이경화 종이비행기 |
| 7 필라여성회 가정상담소 30주년/ 서윤석 의사가 되는 길 | 20-21 미술: 이선화 신화/ 50일간의 세계 일주 |
| 8-9 지부소개: 샌디에고 | 23 과학: 모교 소프트웨어팀 우승/ 장경선 가야금 |
| 10 재정: 김창수- Annuity/ 송운정- 물란 채권 | 24 영화: 장진성 수상한 그녀/ 박평일 노래방 시대 |
| 11 남가주 미대동창회 미술대전 | 25 이달의 사진 박은숙/ 건강: 장수하는 6가지 습관 |

[논설]

미 대선은 정국의 번복일까 개조일까



최용완 (공대 57)

미국의 11월 대선은 이제 마지막 대결로 치닫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정국을 뒤집고 새로운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으로 지금의 오바마 정국을 더욱 훌륭하게 고쳐 가는냐?” 사이에서 마음을 이미 정한 투표자가 60% 이고 투표하는 날까지 지켜보고 결정하려는 투표자는 40%라고 한다. 마음을 정한 투표자는 거의 반씩 균형을 이루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다.

지나간 미국 대선 of 흥분을 회상해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고 옐 고어 부통령이 다음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무렵 경쟁자 조지 부시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선거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 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9·11 사건과 이라크전쟁을 치르는 동안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 가장 인기 낮은 성적으로 전락했다. 그 덕택으로 미국 역사에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쉽게 선출되었고 계속되는 암살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8년 동안에 소수민족의 정계 진출을 돕고 저소득 인구의 소외된 시민들을 보호해왔다. 그럴수록 미국의 공화당 안의 백인 우월주의 인구는 미국 정국의 번복을 기다려 왔다.

정치에 경험이 없던 개인 사업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건국이념에 전통적으로 집착된 백인들의 심정을 내세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선동으로 공화당 경선의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 후보까지 이르렀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에 크게 앞서가던 힐러리 클린턴에 기대하던 관심은 국무장관 시절의 이메일사건, 건강에 관한 의문, 등으로 잠잠해졌고 미국 여론은 약자를 도와서 균등한 경쟁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 도널드 트럼프는 그 덕을 본 듯하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차원이 다른 새로운 막말을 쏟아내며 언론을 통한 대중의 시선을 끌고 다닌다. 그럴수록 대중의 관심을 얻고 시간이 갈수록 당선가능성은 힐러리 클린턴을 앞서가는 듯하다.

대통령 영부인이었고 상원의원, 국무장관 등의 8년 정치경험을 쌓은 힐러리 클린턴은 예일대학교와 웨슬리대학교의 학벌로 민주사회에 개인의 존엄성과 국내정책, 경제정책, 국방정책에 확고한 견해를 갖추었다. 반면에 부유한 가정에서 개인사업에 몰두하며 파산과 성공을 반복해온 도널드 트럼프는 막강한 부동산재벌로 정치경험이 전혀 없고 특히 국방정책에 관해서는 무취하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자국 스스로 보호할 것을 주문하고 8만 2천 5백 미국 주둔군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은 미국의 공화당이 투자보다 ‘소비’에 주력할 때 한국과 신흥국 경제의 수혜가 크다는 기대감과 북한의 핵개발에 속수 무책한 민주정권에 불만과 변화를 기대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한국, 일본, 중국이 겪을 정치적 혼란은 예상을 초월할 두려움

이 꿈틀거린다.

미국 공화당 내부의 주요 인사들과 당 지지층에서도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지만, 그의 연속되는 막말은 멈추질 않는다.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은 완전히 불안정한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만약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내부에서부터 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어 총기규제를 시행할 이전에 누군가가 이 여인을 저지시키는 용단을 내리라고 간접적인 암살을 시도하는 표현까지도 주저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근성을 보여준다. 그는 아직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비밀을 숨기려고 세금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는 길에 몇 가지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하나는 국무장관 시절의 관용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공격 업무를 처리한 불법 사실이 공화당과 여론의 못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6만여 개의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나 절반인 3만 개 정도는 개인 일상에 관한 내용이라서 삭제했던 사실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 경향으로 여자 대통령을 받아드릴 신념이 아직도 약하여 여자 투표 인구마저 주저하고 있다.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8년 동안 집권했기에 이제는 변화를 바라는 미국국민의 관심적 대중심리는 공화당 차체를 기다리는 경향이기도 하다.

어제 뉴욕타임스

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선포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역대 최악의 후보라고 발표했다. 오늘 9월 26일의 대통령후보 공개토론이 이제 막 끝났다. 예상했듯이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이 될 준비를 이야기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질문에 답하기보다 현실 부정적 불평만을 털어놓았다. 앞으로 남은 10월 9일과 19일의 두번에 걸친 공개토론에서 40% 투표의 방향이 정해질 듯하다. 힐러리 클린턴은 민주당 경선토론과 오늘 토론에서 보여주듯 총분히 준비된 토론을 보여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토론에서 보여주듯 오늘 토론에서 보여주듯 자기선전과 부정적 관심거리를 흥미로운 언행으로 시선을 끌어가며 도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양당의 균형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고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른다. 2009년 역사의 미국국정은 조용하게 관조하고 개인과 사회를 위한 본인의 결정을 투표로 말하는 인구에 의하여 꾸러져 가고 있다. 미국 시민이 된 한 인들의 투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현되어 미국 안에 우리의 의견과 결정을 반영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대한다.

〈논설위원〉

대선과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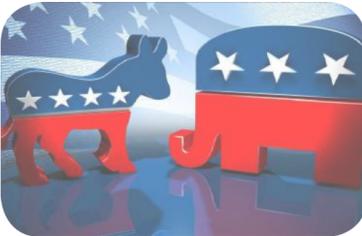
장석제 (법대 68)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 크게 달라지리라는 예상이다.

그래서 “클린튼이 이기면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고 트럼프가 이기면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경제가 이렇게 되고 공화당 후보가 이기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실증성, 구체성이 없어 설득력이 없다. 그런 얘기는 마치 Super Bowl에서 AFC 팀이 이기면 중시가 상승하고 AFC 팀이 이기면 중시가 하락한다는 따위의 이른바 허구적 상관관계(spurious correlation)를 가리킬 뿐이다.

대선의 결과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현상이지만, 최근 안팎의 경제사정이 불안정하고 뒤숭숭한 상황인데다가 경제에 관한 두 후보의 정책과 견해도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특별히 이번 선거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두 후보는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다르다.



클린튼은 여러 가지 경제문제에 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는 반면, 트럼프는 포괄적인 정책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클린튼 경제’보다 ‘트럼프 경제’를 전망하기가 더 어렵다. 게다가 트럼프는 그 동안 어떤 이슈에 대한 자세와 견해를 쉽게, 자주 바꾸는 모습을 보여 왔다.

크게 보아 클린튼은 현 오바마행정부의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튼은 부유층에 대한 중세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인데 트럼프는 전반적인 감세정책을 펴겠다고 해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클린튼도 중산층 지원, 최저임금인상, 대학교육비 감면,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 확대를 겨냥하고 있어 연방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래저래 연방정부의 재정상태가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할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무역에 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지금보다 더 더 보호무역 쪽으로 기울 것 같은데, 특히 트럼프는 국가간 자유무역 협정에 크게 반대하면서 교역에 관한 한 멕시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부정적, 공격적인 태도

를 보이고 있어 무역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 미국이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전체의 40%를 넘고 있어 트럼프가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감소도 우려된다.

이민이나 난민 유입에 관해 다소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클린튼에 비해 불법이민자 추방, 국경봉쇄, 무슬림 입국금지 등 과격한 발언을 해 온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민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이 확실시 된다.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의 주장대로 가령 불법이민자를 모두 추방할 경우 2조달러 이상의 경제손실이 발생하리라는 전망이다. 클린튼이 다른 나라와의 동맹, 협력을 지향하는데 반해, 트럼프는 외교에 관해서도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아메리카니즘을 표방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적 고립을 조래할 수 있고 따라서 경제불황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노년층, 퇴역군인들에 대한 복지 확충을 계획하고 있지만 오바마케어는 반대하고 연방준비위원회의 권한통제, 월스트리트 투자이익에 대한 중과세도 노리고 있어 이 또한 기업이익과 고용지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경제가 달라지겠지만 아울러 상, 하원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현 오바마 정부에서 보듯이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정책집행이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 이기든 미국경제, 세계경제가 단번에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언제부턴가 경제를 위협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들이 크게 늘어나 여러 면에서 경제를 옥죄어 왔기 때문이다. 유가침체, 중국경기후퇴 등 세계경제지표의 악화는 물론이고 여기에 빈발하는 테러, 인종분규, 이민/난민 문제, 대규모 천재지변, 그리고 얼마 전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같은 정치적 이변 등등, 어찌 보면 경제외적 변수들에 의해 경제가 더 크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초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버트런 연방준비위원회는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고 이에 투자자, 소비자들도 갈광질판하고 있어 중시의 바로미터인 다우지수도 지난 8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주춤하면서 갈 길을 못 찾는 모습이다. 미국의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1.4%로 집계되었고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경기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소득격차, 계층간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

어쨌든 경제학자들의 대다수가 트럼프보다는 클린튼의 당선이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니까 이번에도 경제학자들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일리노이주립대 교수, 논설위원〉



이서희 (법대 70)

힐러리 클린튼은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사용, 클린턴 재단 기부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으로 다소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싫어하고 옳지 않다고 믿는 이민정책과 고립주의를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고 때로는 클린턴 보다 앞서고 있으니 이는 무슨 현상일까. 인간의 가치 판단에는 이성과 동시에 감성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극적인 발언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미국 시민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초강대국으로서의 현상 유지일까, 아니면 새로운 질서 속의 초강대국일까? 미국은 초강대국인데도 시민들은 무엇을 많이 잃어 버렸다고 생각하는지, 더 이상 손해보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하는 대중선동이 트럼프에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

부시가 등 특 치며 “사진 줌” 흔쾌히 찍어준 오바마

국립흑인박물관 개관식 참석 부시 관련 동영상 순식간에 SNS 퍼져



채병진 (사회대 87)

이날 개관식에 참석했던 부시 전 대통령은 한 흑인 가족과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다가 여의치 않자 앞에서 있던 오바마 대통령의 등을 툭 치면서 스마트폰을 건넸다.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은 뒤로 돌아선 뒤 흔쾌히 스마트폰을 받아 들은 부시 전 대통령과 흑인 가족들이 함께 하는 사진을 찍어줬다. 현지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찍어주는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담긴 CNN 동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허핑포스트는 이 상황을 글로 읊기며 “놀랍다. 정말 좋다”고 보도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대통령들도 우리와 똑같다”고 평했다.



24일 워싱턴DC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스마트폰으로 부시 전 대통령 부부와 흑인 참석자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사진 부시 인스타그램)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11월 8일로 코 앞에 다가왔다.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편이하게 다른 두 후보의 이민정책이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온 미국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는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자존심에 대한 손상 및 회의감일 것이다.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강한 리더를 원하고 따른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맞는 영웅이 출현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영웅이 출현하기를 미국시민은 이번 대선에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지도자”



영웅일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 클린턴의 차분한 설득력에 기초한 정책에 반하여, 트럼프의 심한 막말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줄 알면서도 속 시원하다고 느끼는 부류가 있다. 클린턴은 초강대국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자는 입장에 반면 트럼프는 미국이 더 이상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말자는 입장으로 정립될 수 있다.

투표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비전 있는 정책과 더불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미국의 자존심을 세워 줄 후보는 누구인가. 투표권자는 올바른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전 LA 민주평통 회장〉



미 건국 초기에는 정치인이 공직을 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 하나가 ‘미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이었다.

없을 것”이라고 실언을 하는 바람에 카터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줬다.

“출마하지 않을 경우 신생 미국의 앞날이 어둡다”는 흑인의 적극적인 설득에 못 이겨 겨우 나왔지만 캠페인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선거인단 전원으로부터 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선출된 것은 미국 역사상 워싱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요즘 대통령 뽑을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후보자 토론이 처음 시작된 것은 1858년이다. 이 때 에이브러햄 링컨과 스티븐 더글러스는 연방 상원 자리를 놓고 7차례나 토론을 벌였다. 토론 형식은 사회자 없이 한 후보가 먼저 1시간 기조연설을 하고 다른 후보가 1시간 반 동안 반박 연설을 하며 첫번째 연설한 후보가 마지막으로 30분 동안 재반박 연설을 하는 식으로 돼 있었다. 장장 3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일곱 차례나 벌였는데도 토론회장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최초의 라디오 토론은 1948년 오리건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토머스 듀이와 해럴드 스테스 사이에서, 최초의 TV 토론은 1960년 시카고에서 민주당의 잭 케네디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 때 닉슨은 자신의 박식과 정치적 경륜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나 어딘가 음침한 인상이다. 딸을 비 오듯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 결국 표를 깎아 먹고 선거에서 지고 말았다. 자신의 패배가 TV 토론 때문이었다고 판단한 닉슨은 68년과 72년 선거 때는 토론을 거부했으며 그 덕인지 두 번 대선에서 이겼다. 토론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 케이스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1976년 제럴드 포드와 지미 카터 간의 대결이다. 여기서 포드는 “소련의 동유럽 지배는 없고 포드 행정부 하에서 그런 일은

1980년 카터와 로널드 레이건과의 토론에서 카터가 레이건을 극단주의자로 몰아붙이자 레이건은 “또 그 얘기냐”(There you go again)고 가볍게 맞받아쳐 승기를 잡았다. 1984년 월터 먼데일과의 토론에서도 레이건은 “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상대방의 젊음과 무경험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먼데일을 비롯한 청중들의 웃음보를 터뜨리며 압승을 거뒀다.

1988년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는 공화당의 먼 케일이 자신을 잭 케네디에 비교하다 로이드 벤슨으로부터 “당신은 잭 케네디가 아니다”라는 직격탄을 맞았고 2000년 선거에서는 핵 고어가 아들 부시가 말을 할 때 마다 혀를 차고 비웃는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관계자들은 이때 고어가 조금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뉴욕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열린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간의 대결은 힐러리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것이 중론이다. 토론에서는 처음 20~30분 간은 뭔가 좀 보여주는 듯 하다. 그 이후로는 클린턴의 페이스에 말려 이리저리 끌려 다니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으며 우왕좌왕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런 그의 모습이 근소한 차로 좁혀진 여론 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의 지지자들 가운데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클린턴-트럼프와 링컨-더글러스 토론 내용을 비교해 본다면 150년 동안 미국 유권자의 정치인의 수준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미주한국일보)

가 모교 소식 SNU NOW

[인터뷰]

‘김영란법’의 김영란 인터뷰



◇최초의 여성 대법관, 그녀가 고민했던 사법의 역할

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서 많은 소수의견을 냈다. 참여연대는 김 전 대법관의 주요 판결을 바탕으로 발간한 이슈리포트에서 “여성·아동·청소년·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려는 노력을 보여줬고 환경권, 노동권, 피고인의 방어권, 불치병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여타 기본권 보호에도 강조점을 두는 판결을 남겼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법관 성향의 다양화를 통한 균형 갖춘 대법원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평가에 김 전 대법관은 소수의견만 많이 냈던 것은 아니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은 흔치 않다. 그런데 최근 한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법무부의 반대로 누더기 법안이 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소위 ‘김영란법’이 그것이다. ‘김영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교수(법대 75)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기도 하다. 대법관 임기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던 김 교수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직을 맡아 부정한 청탁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을 고안했다. 모교의 『대학신문』이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란 교수를 만나 법관으로서, 행정부 기관장으로서, 공직자로서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원칙과 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이를 본보에 소개한다.

◇김영란, 그녀는 누구인가

경기여고와 모교 법대를 졸업한 김영란 교수는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2004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대법관 활동 중에는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무사히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교수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다시 한 번 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후 학교로 돌아온 김 교수는 2011년 권익위원장을 맡아 직무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규제하는 ‘김영란법’을 입법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인 김지연 변호사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장관급 공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퇴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김 교수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1978년만 해도 여성 검사는 아예 없었으며, 여성 판사 역시 많지 않았다. 그 당시 “사법고시에 여자 합격자가 나오면 일간지 사회면 톱기사로 나면 시절”이었다. “지금은 여자를 경쟁의 상대로 보지만 그 때는 경쟁 상대가 아닌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었다는 김 교수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회 부적응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전체를 회상했다. 다수인 남성들이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원하지 않는 모습은 감춰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또 여성 법관으로서 김 교수는 “당시는 일을 못하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여성이라는 집단 전체의 문제가 돼버렸다”며 “여자라서 일을 못하는구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일이 항상 최우선이었다”고 회고했다. 전체 여성 집단의 책임을 다 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김 교수는 실제로 주말에까지 아이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앉혀놓고 자신은 일하기에 바빴다고 기억했다.

김 전 대법관은 여자 판사들이 집안일과 재판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문화에서 소외되거나 조직에서의 능력 배양도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느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일과 가정을 함께 책임지는 여성 법관들이 조직 내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고 느끼는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행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도 소수의견을 내는 것이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선출된 대표를 내지 못한 소수자 집단은 생기게 마련”이라며 “이들을 동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만의 문화나 사유를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여러 모티브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집단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수자 집단을 동화하는 것은 사회를 폐쇄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들을 오히려 사회 변화를 추구할 동력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소수자만을 위한 판결은 있을 수 없지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보호해야 할 소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교수의 생각에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아무리 정치적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다수를 설득하지 못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며 “실제로 사회는 변화하는데 사법부가 변화를 예민하게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판결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교수는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개념을 언급했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언급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법으로 규율돼야 할 사항에 관해 법이 존재하지 않는 ‘법의 흡혈’이 발견된 경우 이를 판결하는 관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입법의 흡혈에 대해 사법부가 판결할 수는 없고 입법과 사법의 경계에 있는 경우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적극주의가 될 수도, 소극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의 호적 정정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한 나라도 있고 사법으로 해결한 나라도 있다. 당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호적 정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소수의견은 성별을 바꾼 것을 정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오래 걸릴 입법의 과정 동안 당사자가 입을 인격권 침해나 피해의 문제,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만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법소극주의가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청렴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

김 교수는 대법관 퇴임 당시 다시 한 번 모두의 이목을 끄는데, 전임자였던 조무제 전 대법관이 그랬듯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 교수는 “제가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웃어넘기며 “비싼 수임료를 받으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야 하는데 남은 인생은 다른 창의적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변호사 개업을 포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김 교수의 행보에 대해 한 일간지에서는 ‘100억’을 포기했다고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그녀는 “대법관, 더 나아가 판사직을 하고 나면 변호사는 안 하는 시대가 와야할 것”이라며 전관예우가 만연한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녀가 또다시 세간의 화제로 떠오른 이유는 권익위원장 시절 입안하고자 했던, 소위 ‘김영란법’ 때문이다. 그간 법무부의 반대로 입안되지 못했던 이 법안은 최근 법무부와 권익위 간의 논의 끝에 합의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합의안은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지 못하고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원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법안을 만들게 된 계기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권익위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기관으로 국내 반부패위원회로서 최고 기관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부패는 많이 줄었다”며 “남은 문제는 연고관계에 의한 봐주기인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김 교수가 생각한 해결책은 바로 ‘강력한 규제’다. 법안의 원안에 따르면 직무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스폰서’를 막자는 것이 기본적인 이 법의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이미 형법상 처벌 근거가 존재하고 △과잉 규제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공무원과 일반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권위주의의 정권 하에서의 규제 입법이나, 새로운 규제 창설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는 듯하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법안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김 교수는 김두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와 함께 펴낸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부패와 청탁에 관련한 법안을 입법하고자 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 문제의식은, 착한 사람들도 발을 조금만 짚게 하면 금방 온몸을 다 적시게 된다는 데에서 출발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발이 짚는 거예요. … 그래서 저는 판사시절 초기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못 받도록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교수는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이미 권익위를 때렸는데 법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현실을 힘겹게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기를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운을 댄 김 교수는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생각하게 되고 자존감은 더 낮아지며 자존심은 총족 안 돼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청춘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후배 판사들에게는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모를 때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후회가 적다”고 말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원칙을 지켰을 때 오는 어려움은 지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그래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크지만 ‘법률가의 본질이 무엇이고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왜 자기가 법률가가 되려하는지 늘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김 교수는 “대법관이 되겠다, 돈을 잘 버는 법률가가 되겠다 등의 막연한 꿈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법률가 상을 정립해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신문>

인터뷰: 이문원 편집장 moonwon@snu.kr

글: 정진욱 부편집장 jjo524@snu.kr

가 모교 소식 SNU NOW

오드리 멤버들

오드리(5drey)는 5명의 서울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가야금 앙상블이다. 앙상블에서 연을 수 있었던 감동을 직접 만들고 싶어 5명의 학우가 2016년 1월 팀 구성 및 준비를 시작하였다. 2016년 5월 첫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공연을 지속하고 있다. 다섯 명의 가야금 나들이를 뜻하는 ‘오드리’는 자신들의 음악이 나들이 가는 느낌처럼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기를 바라는 단원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현재 구성원은 김다혜(11학번, 국악과), 김솔(16학번 대학원, 국악과), 김지효(13학번, 국악과), 오지현(13학번, 국악과), 박지현(14학번, 국악과)이다.

함께 떠나는 나들이

스스로 준비하여 팀을 구성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만큼 오드리를 하면서 단원들은 함께 하면서 얻는 가치가 남달랐다고 한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드리를 하면서 함께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함께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김지효 학생) “정말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서로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오드리를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현 학생)” 그들 사이에서 학년과 나이 차이는

다섯 가야금의 아름다운 나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 보였다. “사실상 나이만 다르지 친구 같아요. 어떨 때는 동생들이 언니 같기도 해요.(웃음) (김솔 학생)”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 힘든 일들이 오드리의 성장 밑거름이 되었다. “다섯 명이 합주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힘든 일들이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완성시켰을 때의 성취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김다혜 학생) “평소에 1주일에 1번, 3-4시간 정도 학교 음악대학 연습실에서 연습해요. 본격적인 공연이 다가오면, 매일 연습을 해요. 창단공연을 준비할 때에는 수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아침 7시에 모여서 연습하기도 했어요.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다들 서로 잘 의지하면서 버텼어요. 그 이후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기분은 특히 좋아요. (오지현 학생)”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다

올해 5월 27일, 오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책을 모티브로 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나비가 있다’는 제목의 공연을 하였다.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스토리가 있는 앙상블 공연이었다. 나 자신을 생각해보는 진한 여운이 남는 프로그램(Intro 탄생, 1장 설렘의 시각, 2장 향화, 3장 불안의 그림자, 4장 꿈의 향해, 5장 보통 사람들, 6장 나비의 꿈)으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과 고민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오드리 단원들에게는 이 공연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었다. “이번 공연은 저희가 스스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공연은 스토리가 있는 앙상블이었거든요. 타인에게 맡기면 저희의 감성, 생

각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김다혜 학생)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뿌듯함이 더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함으로써 흐름이 끊기지 않은 채, 공연을 원하는 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오지현 학생)”

하지만, 아쉬운 점도 당연히 남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영상을 제작해서 공연에서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상 제작에 드는 비용이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많은 비용이어서, 아쉬웠어요. (김지효 학생)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만큼, 현실에 맞춰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김솔 학생)”

국악의 세계화 이전에 국내화를

가야금으로 국악을 연주하다보니, 아직은 낮은 국악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국악이 이제야 조금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공연을 하다보면, 관객들을 서로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던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박지현 학생) “국악의 세계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오히려 국악의 국내화는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음악이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면 언젠가 사라질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다혜 학생)”

모교 홍보팀 학생기자 김동욱(경영학과 11학번)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550 Township Line Roa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www.snuaa.org, general@snuaa.org
484-344-5500 / 484-342-0222(F)

제 15대 (2019.7 - 2021.6) 회장후보 추천공고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는 미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회원 중 미주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 15대 동창회장 (임기 2019.7 - 2021.6)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훌륭한 후보를 금년12월 31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회장, 현회장, 차기회장지역은 제외합니다.

인선위원장 오인환 (제 12대 회장)

제 15대 회장 (2019.7-2021.6)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 선거일정
 - 2016년 12월 31일: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복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회보등을 통하여 출마공약을 발표한다.
 - 2017년 6월: 전국평의원의회의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회장 확정
- 근거규정: Nomination Committee (Standing) Rules & Regulations
- 차차기회장 후보는 재미서울대 지역동창회 회장을 역임했거나 혹은 총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혹은 일반회원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4초참조)

연락처: 오인환 직전회장(DC) (301-775-3919) ioh0858@comcast.net | 손재욱 현직회장(필라델피아) (267-736-2992) JHaahs@timhaahs.com
윤상래 차기회장(NE) (978-835-0100) yoonsville@aol.com | 민준기(뉴욕회장) (845-270-0451) joonmin1@yahoo.com
김병연(남가주회장) (213-923-0607) byeongk@gmail.com | 이상강(하트랜드회장)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정승규(시카고회장) (773-562-0677) s_jung@att.net

원고 모집합니다

11월호 특집으로 ‘컨망증(Brain freeze) 에피소드’를 모집합니다. 12월호는 ‘나눔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내가 나누 나눔, 내가 받은 나눔과 감사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외에도 일반 원고, 시론,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500 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고화

질)를 보내주세요. ‘이달의 사진’과 ‘서울대 학창시절의 사진’도 보내주세요. 앨범 사진을 스캔하든가, 셀폰(고화질)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은 general@snuaa.org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요 인물
SNU PEOPLE

[동문자녀] 제인 김 (Jane Kim)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 도전

김광호 동문(문리대62)의 장녀이며, 이번 11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11 선거구)에 출마한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을 위한 후원회 밤이 지난 8월 29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약 100여명의 후원자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진구 전 서울대 미주동창회장 및 김창수 전 서울대 뉴욕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후원의 밤에서 제인 김 후보는 홀리스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한 14살 때부터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한인사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어릴 때부터 공공정책과 사회개선을 위한 일들에 관심이 많

았던 자신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한인 최초의 샌프란시스코(SF) 시의원인 제인 김은 선거 홍보 유튜브 동영상 (Jane Kim Fight)으로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과 내면의 성숙도를 길렀던 경험을 소개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소신과 계획을 보여주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제인 김은 많은 동양 청소년들이 토요일마다 음악으로, 학업으로 바쁜 고등학교 시절부터 홀리스 단체에서 봉사했고, 스탠퍼드대학 정치외교학과와 UC 버클리 법대를 졸업한 후 인권 변호사로 일했다.

2006년 26세에 샌프란시스코 최연소 교육위원회에 당선된 후 교육위원장을 거쳐 2010년 한인 최초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2014년 11월 재선에 성공했다.

글: 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물리학 권위자
김필립 하버드대 교수
아프리카 TV 출연



한국인 최초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거론됐던 그래핀(Graphene) 분야 석학 김필립 (자연대 물리학과 86) 미국 하버드대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에 출연했다.

김필립 교수는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201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유력하게 꼽혔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대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물리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래핀은 흑연을 의미하는 '그래파이트(graph-

ite)'와 화학에서 탄소 이중결합을 가진 분자를 나타내는 접미사인 'ene'를 결합해 만든 신소재 용어다.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빨리 전류를 전달하며 강철보다 200배 강하면서도 신축성이 좋아 휘거나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김 교수가 아프리카 TV 출연을 결정한 것은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방송인 광방TV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I 제도·약·경영 등 3인방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광방TV는 알파고, 양자역학, 진화론, 심해, 중력파 등 현재까지 60여편이 진행됐다. 기존 교육적인 측면보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과학적 경이로움을 대중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교수는 이전부터 대중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그는 "정말 좋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토론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과학자들이 지원받는 연구비는 어디까지나 공공재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유용한 결과를 얻었다면 세상에 돌려주고 일반인들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 출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방TV 메인 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미 동부 최초의 한인검사였던 김광호 동문은 자신은 제인이 변호사가 되어 3대 법조인 가족을 이룬 것에 마음이 기뻐했는데, 정작 제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로써 내가 놀라면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다고 한다. 평범한 길을 가는 딸의 평안한 행복을 기대하는 보통아버지라는 김광호 동문은 어려서부터 집안에 걸려있던 "수신제가 인류복지"라는 가훈을 할아버지(고 김중수 법학박사-대검검사,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장 및 서울법대 강사)께서 가르치실 때부터 마음속에 깊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두었던 딸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한인여성이라는 정체성(identity)은 본인에게는 교육열과 성실도를 증명하는 강점이요, 아시안계라는 점은 limitation이 아닌 asset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민자의 딸인 제인 김에게 주위에서 연방의회 진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적극적인 후원을 아낌없이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박정란 동문, 휴스턴
교육원 원장에 취임

박정란 동문(사대79)이 지난 22일 부인 해서 앞으로 3년간 제8대 휴스턴 교육원장으로 재직하게 된다. 박 원장은 모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79학번)와 대학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교사연수 및 정책기획, 학생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23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해왔고 올해 3월부터 서울 문정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휴스턴 교육원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박 원장은 휴스턴 한인언론사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교육청 재직 당시 교사연수, 정책기획, 학생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학생들에게 정치, 역사, 지리 등을 가르쳤던 터라 일찍부터 재외동포들의 삶과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포 및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과 현지학교의 한국어 채택사업 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특별히 동문들에게 보낸 이메일로 "이 넓은 지역에 굳건하게 자리잡고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모든 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기다리겠습니다."라며 취임 인사를 전해 왔다.



필라델피아 여성회 가정상담소 30주년



지난 9월 10일 필라델피아 여성회 가정상담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강연회를 가졌다.

블루벨에 소재한 '아리수' 레스토랑에서 100여명의 회원과 가족, 지역 인사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심영미(부군 심완섭 의대67)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모임에서 한혜원(사진, 의대 55, 부군 한수웅 의대 55) 이사장은 "필라델피아 여성회 가정상담소는 한국에 소재한 한국가정상담소 소장이며 한국의 첫 여 변호사였던 이태영(법대46) 박사의 권고로 1986년 북미주에서 열번째로 설립되어 가정문제, 언어문제, 자녀문제, 법적인 문제 등에 5000여건의 상담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고, 18명으로 시작한 여성회가 1년만에 83명 회원으로 늘고 남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으로 명칭은 여성회지만 남편들과 함께 운영되어 온 기관

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서울대 미주재단 이만택(의대 52) 이사장은 "필라델피아 여성회를 통해 여성들이 깨어나고, 지난 30년동안 5000여건의 상담, 202번의 열린 강좌, 22권의 '필라여성' 매거진을 발행하며 이 민생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축사를 하였다.

"5000여건 상담 남편들의 외조덕분"

윤정나(음대 57) 동문의 Beethoven의 'Romance in F' 바이얼린 독주가 필라음악인협회 고수지 회장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이어서 '동아시아의 맛과 향: 종교와 예술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New Brunswick 신학대학원 재직 중인 김진홍 교수의 강연이 뒤따랐다. 김 교수는 '놀라움, 미움, 체념, 미적응화, 신앙'으로 이어지는 한국인 특유의 한(恨)을 설명하며, 중국인의 한은 형(形)으로, 일본인의 한은 색(色)으로,

한국인의 한은 선(線)으로 구별하였고 이민 여성들의 이런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30년 동안 해 온 필라델피아 여성회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고 했다.

화기에애한 월탁의 만찬으로 이어진 이날 모임에는 손재욱 미주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송영두(의대 62졸), 정정수(의대 62졸), 김영옥(의대 60졸), 김영우(공대62), 신성식(공대 62), 이규호(공대56), 이우영(공대56), 이연찬(의대50), 김규간(치대 64), 서중민(공대 64), 최정웅(공대 64), 박경빈(농대79), 민홍식(수의대60), 서재진(공대47)/이영선(공대52), 엄종열(미대61), 윤경숙(문리대59), 정홍택(상대61), 최현태(문리대62), 김정현(공대 68)/김경희(가정대71) 한창규(의대75)/고영미(간호대 75) 등의 많은 동문들이 부부로 참석했다.



어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의 임상실습 연수과정을 온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금년에도 모교 4학년 학생 16명이 미주동창회를 방문해서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총명하고 젊은 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잘 이겨내고 올라온 우리 의학계의 앞날을 이끌어갈 가장 스마트한 선택된 엘리트가 아닌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평균적으로 다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학업을 끝내도 요즈음 취직난이 심해진다든 이야기도 들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50대가 되면 한창 일을 할 나이에 다른 직종들은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만은 그래도 평생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정도 생활이 보장되는 직업 중 으뜸이기 때문인지 현재는 가장 우수한 학생이 의과대학을 선택한다고 들었다.

전건한 판단력과 사회성이 요구되는 천직이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필요한 건강과 긴 시간, 많은 학비, 고등학교 졸업후 학비만 40만불, 50만불(한국돈 4억~5억원)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을 나오고도 어렵고 긴 전문 수련과정이 요구된다. 점차로 분화되는 전문의 과정(4-7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기본적인 생활비만 받고 그 과정을 모두 마쳐야 된다. 이때부터가 직접 환자를 다루면서 임상경험을 체득하는 의술의 핵심을 배우는 제일 중요한 의학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끝내면 요즈음의 의료인들은 개인개업을 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그룹으로 하거나 대학병원 혹은 커다란 병원 시스템에서 수백명, 수천명이 같이 일하게 된다.(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취직, 미국 Kaiser 병원등).

한편 우리가 몹시 아파서 한방중에 병원문을 두드릴 때, 정작 우리를 치료해 줄 의사가 누구일까를 상상해 본다. 큰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태로울 때 쓸바른 조속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현의료시스템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의 수가 조정, 우수한 학생에게 중요한 과목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50년 전에는 가장 우수한 이과계통의 학생이 공과대학을 지망했는데 요즈음은 공대는 정월미달이라고 한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게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나라이다. 의료 소송자제, 의료보험, 수가의 재조정,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리감독등 조속한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좋은 학생이 중요한 과목도 지원하도록 격려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마찬가지로 미래의 의학계를 이끌어 갈 이 귀한 인재들에게 희소식이 있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항상 생명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밤 낮으로 열심히 배우려는 우리 후배 젊은 의학도들을 볼 때 필자는 그래도 우리 의료계의 미래에 큰 희망을 가진다.

글: 서윤석 (의대 62, 전 미주서울의대총동창회장)

의사가 되는 길

현실적인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자. 고등학교를 졸업 후 13-15년이 소요된다. 한 명의 전문의가 되려면 만으로 32-35세가 된다. 아마도 이때쯤이면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태어났을 것이다. 긴 기간을 뚫다운 청춘을 몽땅 의학공부에 바친 셈이다.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할까? 금전 만능주의가 된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이 학비로 사용한 30-40만불 가깝게 빌려온 빚을 언제나 갚을 수 있을까?

필자는 우수한 젊은 의학도 중 많은 수가 수입이 좋은 밤에 응급환자가 없는, 깨끗하고 쉬운 과목만을 지원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일은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서도 흉부외과나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목에는 수련의 과정에 지원자가 없어서 타 지방대학 졸업생이 자리를 메꾸어야 한다고 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좌로부터 김유민(학생),장세권(2001졸업),서윤석(68),김민혜(학생) 신지현(학생),남영호(81졸업) 배경에 의료보험의 변화를 일으킨 오바마케어의 주인공 오바마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사진이 보인다.

지부 소개

샌디에고 San Diego



Balboa Park La Jolla Cove Sea World



1. 연혁과 카버하는 지역은?

샌디에고 서울대 동문회는 1980년에 대 선배이신 고이선 박사(microsurgery 선구자: 42학번으로 추정)를 첫회장으로 모시고 창설 (부회장 고 김옥경(법대)) 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고 김옥경 회장/정현식 (공대 54) 부회장으로, 1982년에는 정현식 회장/박성민(의대 58)부회장으로 계승해 갔습니다. 초창기 동문회 행사로는 (1) 여름 picnic, (2) 정구 시합, (3) Thanksgiving Dinner를 회장 자택에서, dance lesson (Xmas party 준비), 차기 회장단 선거, (4) Xmas party에서 신 회장단 소개, 연말 사업, 재정 보고를 하였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좋은 강연 모임, 장학금 모임, 한국 재난 기부금 모임 등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0년까지 50 - 70년대 동문들이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1년부터 80년대 동문들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간의 동창회 행사는, 4대 주요 행사 (등산, 골프, 피크닉, 송년회)와 중간중간에 작은 행사들 (볼링, wine testing, kayaking, camping/stargazing, scholarship fundraising walking, community services, etc.) 을 해오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동문회가 커버하는 지역은 남쪽으로는 Chula Vista에서부터, 북쪽으로는 Oceanside/Vista 지역 및 샌디에고 카운티 주변 지역을 커버합니다.

2. 동창회 멤버는 몇명이고 보통 모이는 숫자는? 연령분포? 확보된 이메일 주소 갯수/동문들의 삶의 모습들(연령 분포, 직업, 취미, 사회봉사, 교육 등)

샌디에고 동문회 회원은 대략 180 - 190 명 정도 됩니다. 모이는 숫자는 주요행사의 경우 30-80명 정도 모이고, 소규모 행사 (볼링대회, 카약행사, 캠핑/stargazing, 장학기금 마련 걷기대회, 지역봉사, 와이너리 투어 등)의 경우 15-3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노인건강 교실 (1월 15일, 샌디에고 한인노인회)

3. 동창회의 그동안의 활동 상황 (적당한 사진 여러 장: 피크닉, 음악회, 전시, 파티, 봉사활동, 강연회 등.)

샌디에고 동창회는 올 1월부터 매달 하나 이상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16년의 샌디에고 동문회의 활동상황을 요약하였습니다.

노인건강 교실 (1월 15일, 샌디에고 한인노인회)

지역봉사 추진 위원회 올 해 첫 공식활동으로 샌디에고 한인노인회에서 노인건강교실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00명 이상의 한인 노인회 분들이 참석하였고, 우리 동문회에서는 민영기 (치대 61) 동문이 "구강위생"에 관한 강연을 하였고, 임춘수 (의대 57) 동문이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의학상식"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샌디에고 동문회에서 참석한 모든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맛있는 빵 공로박떡을 준비하였습니다.

•UCSD점심모임 (2월 8일, UCSD): 2월 행사로서 UCSD에서 임원진 (회장 최홍수(87)) 과 90/00학번과의 점심모임이 있었습니다.

•볼링대회 (2월 20일, Kearney Mesa Bowl Center) 이번 볼링대회에서는 참가한 동문들을 3개조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게임 후에는 피자, 나쵸, 치킨, 감자튀김, 콜라등으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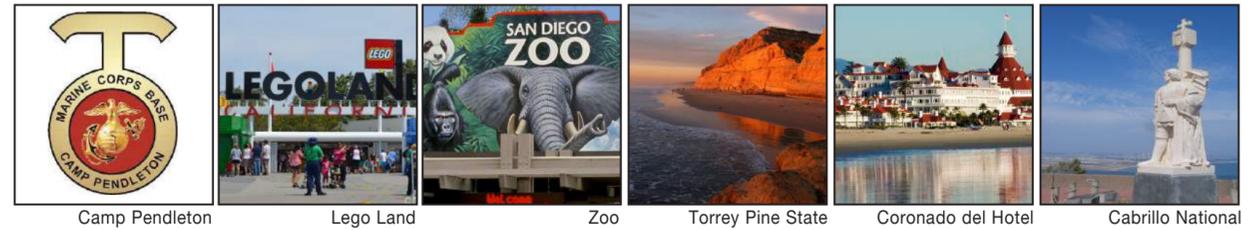
•Winery Tour 행사 (3월 12일, Orfila Winery) 3월 12일 (토) Escondido에 있는 Orfila Winery에서 Wine testing 행사가 있었습니다.

•등산 (4월 16일, Mountain Woodson/Lake Poway) 4월에는 샌디에고 동문회의 4대 주요 행사 중의 하나인 등산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등산에는 총 42명의 동문/동문가족 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상반기 동문회 이사회 (5월 11일, 부가)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홍수 회장이 올해 지금까지 있었던 동문회 행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 이정석 부회장이 상반기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하여 회계보고를 하였습니다.

•골프대회 (6월 11일, Castle Creek 골프장) 6월행사로서 샌디에고 동문회의 4대 주요 행사 중의 하나인 골프대회가 한평철 동문 (상대 64)이 운영하는 Castle Creek 골프장에서 있었습니다.

•하반기 지역봉사 추진 위원회 행사 (7/16, Bread of Life, Oceanside) 지역봉사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문상 (공대 62))의 올해 두번째 공식 봉사활동이 Oceanside에 있는 Bread of Life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Bread of Life는 1999년에 설립되어 Oceanside, Vista, San Mar-



Camp Pendleton Lego Land Zoo Torrey Pine State Beach Coronado del Hotel from the beach Cabrillo National Monument

cos, Carlsbad, Escondido, Encinitas 6개 지역의 극빈자 또는 노숙자들을 포함하여 한달에 대략 15,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선단체입니다.

•캠핑/Stargazing 행사 (7월 30일, Dos Picos Park) 동문회 7월 행사로서 캠핑/stargazing 이 7월 30일 (토) Dos Picos Park에서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총 26명의 동문 및 배우자/가족 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카약 행사 (8월 20일, La Jolla Shore) 동문회 8월 행사로서 카약이 La Jolla Shore에서 있었습니다. (총 11명 참가)

이어서 올해 남은 동문회 행사는,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 처럼,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장학기금 마련 걷기대회), 10월 (야유회), 11월 (하반기 이사회/지역봉사 행사) 및 12월 (송년회).

4. 동창회가 설립후 이제까지 해온 일 중에서 자랑스러운 일은? 타 지부에도 권하고 싶은 것은?

샌디에고 동창회에서 해 온 일 중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두 개 정도 든다면, 하나는 지역봉사 추진위원회 활동과 동문회 장학금 지급을 들 수 있습니다. 지역봉사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문상 (공대 62), 부위원장 심상철 (공대 81))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대략 두 개 이상의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문회 의사분들이 샌디에고 한인노인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교실을 해드리고 있고, 소아당뇨병 환자 기금마련 걷기대회, Bread of Life (자선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지급은 2011년에 구성된 동문회 장학위원회에서 매년 3-6명 정도의 학생동문/포스닥 동문들을 선발하여 1인당 \$500 - \$1000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포스닥 동문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그들이 장래에 후배 동문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장학금 지

급이 샌디에고 서울대 동문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나 추후 기금이 늘어나면 샌디에고 지역의 불우한 학생들에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금 모금 운동은 연중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9월에 장학기금 마련 걷기 대회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문회 장학금은 매년 송년회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포스닥 동문들은 동문회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 해 동문회 운영진의 일부 역할 (총무, 간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5. 미주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지역의 관광명소, 문화/정신적 가치, 교육 역사 등. 이 중에서 특히 지역을 상징하는 단 한가지를 든다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주 최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다를 끼고 있어서 연중 기온이 따뜻하고 쾌적하여,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의 하나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크기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큼니다 (미국에서는 8-9번째라고 합니다). 인구는 대략 130만명 전후라고 하며, 한인 인구는 대략 3만명 전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안 또한 미국 내에서 제일 안전한 곳으로 손꼽혀 미국인들이 은퇴 후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꼽히기도 합니다.

샌디에고의 경제는 대체로, 농업,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전자/통신업체 (Qualcomm), 방위산업, 해군 (Camp Pendleton) 그리고 관광 산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학교로는 U.C. San Diego, University of San Diego, San Diego State University 등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지역의 관광 명소는 많이 있습니다. 다운타운 근처의 Balboa Park, Downtown Zoo, Cabrillo National Monument, Sea World 등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La Jolla Cove와 Torrey Pine State Beach가 있으며, 좀 더 북쪽으로 가면 San Diego Wild Animal Park/Lego Land 가 있는데 이 두 곳은 Sea World와 함께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Cabrillo



National Monument에서는 샌디에고 다운타운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6. 동창회 운영에 어려운 점? 미주동창회 본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동문들이 행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7. 이번 평의회의에서 회칙에 따른 '장학위원회'와 '나눔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임원명단:

회장: 최홍수 (자연대 87)
 부회장: 서정용 (공대 81), 김주성 (농대 83), 이정석 (공대 87)
 총무: 이민태(공대 94), 박성주 (인문대 95)
 간사: 성혜승 (사회대 99), 한진주 (자연대 99), 김진우 (공대 03), 박준호 (공대 06), 최원형 (자연대 09)
 자원봉사 운영위원: 이진의 (사대 92)





김청수 (약대 64)

저축과 투자의 목적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수익(이자, 배당, 양도소득 분배액)과 투자대상의 시장 가격이 올라서 나중에 이를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이다.

투자소득과 양도소득이 다 같이 기대되는 투자대상은 드물다. 투자소득이 높으면 시장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투자의 안정성이 높으면 투자소득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본인의 투자 목적에 부합되는 투자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기술이고, 거기에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운(運)도 많이 작용한다. 투자 중에서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투자원금의 손실이다. 은행의 머니마켓이나 CD는 투자 수익률은 대단히 낮지만 원금 이하로 투자가격이 내려갈 확률은 없다.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뮤추얼펀드는 시장의 변동에 따라 시장가격이 원금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다.

수 년 내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데에 투자를 했다가 추가 하락으로 투자액이 원금 이하가 되면 남패를 보게 된다. 장기 투자를 위해 또는 은퇴 후의 생활비 조달을 위한 투자대상으로 어뉴이티(Annuity)가 적극 권장된다. 어뉴이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본인 생전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투

[재정]

어뉴이티(연금보험)

Annuities



자자와 금융보험회사간의 계약이다. 우리나라 말로 “개인 연금보험” 이라고 칭한다. 어뉴이티의 적립금은 불입 시에 세금공제가 되지는 않지만, 투자소득에 대해서 인출 시까지 소득세가 연기되므로, 다른 은퇴플랜과 유사하다.

그래서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없이 계속해서 재투자 되므로, 일반투자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가 어뉴이티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에 적립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사망 시까지 정기적으로 즉 연금식으로 상환을 해준다. 이 상환액은 소정의 이자나 투자소득이 더해진 것으로,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수록 원금에 비해 투자소득이 많아진다. 어뉴이티 적립은 한 번에 목돈으로 할 수 있고, 시간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돈을

낼자 말자 바로 연금을 탈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이자나 투자수익을 키웠다가 나중에 연금을 탈 수도 있다. 전자를 “즉시 인출용” 어뉴이티(Immediate Annuity)라고 하고, 후자를 “연기후 인출용” 어뉴이티(Deferred Annuit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즉시 인출용 어뉴이티는 목돈을 넣고 시작하고, 연기후 인출용 어뉴이티는 목돈이나 정기적립의 두 가지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가지고 일시불로 적립한 후, 즉시 인출용 어뉴이티 계약을 하면서 최소수익률이 보장되는 고정 어뉴이티를 선택하면,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매월 다음과 같은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받게 된다. 즉 65세에 시작하면 매월 465.30 달러, 70세에 시작하면 매월 517.34 달러, 75세에 시작하면 매월

581.39 달러를 평생 연금으로 받게 된다. 원금 10만 달러를 다 받기 전에 투자자가 사망을 하면 그 차액을 수혜인(Beneficiary)이 받게 된다. 어뉴이티는 투자양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일정 기간 고정이자를 보장해주는 것이 CD-Type 어뉴이티로, 일반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등 약정기간에 걸쳐 연금이 지불된다. 어뉴이티 회사에서 미리 정해진 투자수익률이나 최소수익률(예, 연 5%)을 보장해주는 것이 고정(Fixed) 어뉴이티이다.

뮤추얼펀드와 같이 어뉴이티 내에 주식, 채권, 머니마켓 등 여러 형태의 투자대상에 계좌를 설정하고 적립금을 투자하는 것이 변동(Variable) 어뉴이티이다. 변동 어뉴이티에도 투자성과가 좋지 않을 때 최소한도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도 있다. 고정 어뉴이티와 변동 어뉴이티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덱스형(Indexed) 어뉴이티라는 것도 생겨났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어떤 특정 지표(예, S & P 500, 다우존스 주가지수 등)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정해지는 대로 어뉴이티의 가치가 따라가도록 되어있다.

어뉴이티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뉴이티가 평생 동안 연금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거나 은퇴 후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고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것에 비중을 두는 투자자는 어뉴이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CPA,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재정]

물란 채권



승은정 (인문대 89)

1994년에 한국공인회계사에 합격해 직장생활을 한 지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역사적인 소용돌이가 가운데 일한 기억들이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한국이 외환 자금을 조달려 외국 투자자에게 많은 자산을 매각해야 했을 때 기업 인수 합병을 위한 평가, 1998년엔 다가오는 2천년을 앞두고 두 단위로 표기된 해를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해 벌어질 대란을 막기 위한 Y2K 프로젝트로 바빴다. 99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후 2001년 5월부터 세계은행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2002년 1월 유로화 출범을 앞두고 14개국의 통화들을 유로화로 바꾸는 일, 2008년 9월엔 세계은행 내 재무부서로 옮겨오자마자 당시 전 세계 주택담보 채권의 선두주자였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해 엄청난게 바빠 일했었다.

2016년 9월, 재무부서의 많은 동료들이 SDR 변경 관련 일로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 SDR은 1969년 국제 통화기금 IMF에 의해 만들어진, 미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 그리고 일본 엔화로 구성된 일종의 통화바스켓이다. 2015년 11월 30일, IMF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네 통화에 중국 렌민비CNY 통화가 SDR에 더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CNY 통화 비중은 10.92%로 미 달러화가 5.3%, 유로화가 3%, 파운드가 2.5% 그리고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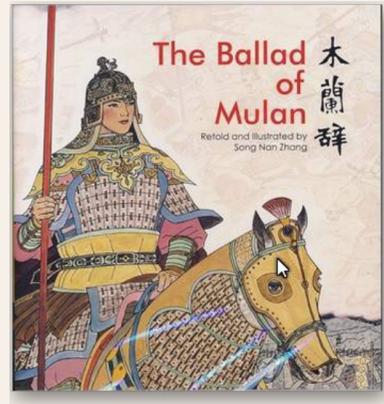
화가 1.2% 줄어드는 것이다. 이 발표가 있는 직후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CNY 추가는 단지 상징적인 것에 그쳐 실질적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거나 ‘악마는 구체적인 것 안에 있다’는 표현으로 자세한 실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변화가 이곳 세계은행 재무부서 사람들에게겐 엄청난 일들을 안겨 주었다. 올 초부터 많은 이들이 중국 재무부와 중앙은행과 함께 일해, 8월 31일 중국에서CNY로 결제하게 될 SDR 채권을 발행했다. SDR 총 5억 (미화 7억 상당)으로 첫 물란 ‘Mulan’ 채권의 등장이었다. 이 물란 채권이 SDR 50억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분명 이는 중국 채권시장,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미치는 중국통화와 더불어 중국의 힘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IMF와 세계은행의 일부 투자자금은 SDR로 운용되고 있어, 10월 1일 전에 CNY비중이 10.92%에 이르도록 9월 동안 각 자금의 미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로 보유하는 자산을 팔아 CNY로 전환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에게엔 이 일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로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묻는 이도 있겠다. 이 짧은 글에서, 많은 중국 동료들이 이 일로 인해 중국을 오가며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일하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채권에 붙여진 이름 - ‘물란’이 내게 던진 두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중국이 자랑하는 유구한 역사 가운데 많은 인물과 유물 중 왜 ‘물란’이 역사적인 채권의 이름이 되었을까. 물란은 디즈니 만화 영화 속 인물로 유명해졌는데, 물란은 역사상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 중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치르던 5-6세기에 쓰여진 서사시 ‘물란 송가 Ode to Mulan’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즉 옛 시가 낡은 인물이다. 이 이름이, 우리 선조가 남긴 고시조 한 구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두 번째 생각은 ‘물란’이란 이름이 상징하는 중국 여성의 능력이 어디서 오고자했다. 내 사무실엔 결혼한 중국 여성이 몇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남편이 일을 마치고 와 집에서 저녁 요리를 하고 남편이 싸 준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한다. 그들이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항상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한다. 처음엔 그저 운 좋게 좋은 남편을 만났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 가정엔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힘이 전통적으로 막강하고 특히 문화혁명과 1인 자녀 시대를 거치면서 가정 내 남녀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이었다.

오늘도 나는 새벽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과 점심 도시락을 싸고, 출근해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밀린 설거지와 저녁 준비를 하니, 한국 가정엔 남녀 차별이 없는 그 날이 언제 올는지... (CPA·CFA 세계은행 재무부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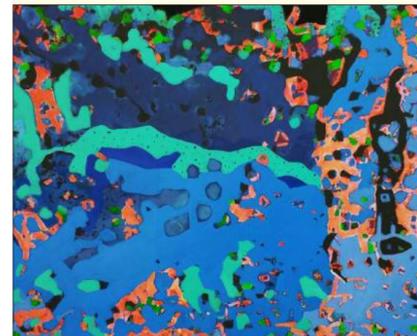
남가주 미대동창회 미술대전



신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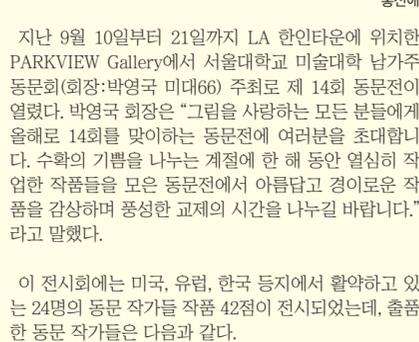
김경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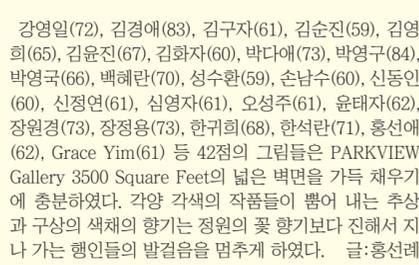
강영일



홍선애



정석란



문태자



백혜란



신경연



정석란



문태자



백혜란

지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PARKVIEW Gallery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남가주 동문회(회장:박영국 미대66) 주최로 제 14회 동문전이 열렸다. 박영국 회장은 “그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동문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계절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작업한 작품들을 모은 동문전에서 아름답고 경이로운 작품을 감상하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이 전시회에는 미국, 유럽, 한국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24명의 동문 작가들 작품 42점이 전시되었는데, 훌륭한 동문 작가들은 다음과 같다.

강영일(72), 김경애(83), 김구자(61), 김순진(59), 김영희(65), 김윤진(67), 김화자(60), 박다예(73), 박영구(84), 박영국(66), 백혜란(70), 성수환(59), 손남수(60), 신동인(60), 신경연(61), 심영자(61), 오성주(61), 윤태자(62), 장원경(73), 장정용(73), 한규희(68), 한석란(71), 홍선애(62), Grace Yim(61) 등 42점의 그림들은 PARKVIEW Gallery 3500 Square Feet의 넓은 벽면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였다. 각각 각색의 작품들이 뿜어 내는 추상과 구상의 색채의 향기는 정원의 꽃 향기보다 진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글:홍선례

뉴잉글랜드 : 아유회 & 임시총회



뉴잉글랜드동창회 가을아유회 및 임시총회가 지난 9월 10일 (토)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보스턴 외곽 어번데일 공원 (Auburndale Park)에서 개최된 아유회에는 52학년 김대식 (공대) 동문부터 2003학년 강은주 (수의대) 동문까지 6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오랫동안 만난 기쁨을 함께 했다. 50년대 입학한 이준순 (사대 55), 김인수 (사대 55), 김경일 (공대 58), 홍성용 (상대 58), 김선혁 (약대 59) 동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준순 동문은 모친 신좌경 여사(사친 우상)를 모시고 나와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신좌경 여사는 현재 만 10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 동창회에 또다른 기쁨을 선사했다.

회의에 앞서 이사회가 개최되어 "회장 또는 차기 회장 선임시 모든 회원들이 회장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이사회에는 고일석, 김경일, 김문소, 김선혁, 김은한, 김인수, 박영철, 윤상래, 윤

용훈, 윤은상, 이강원, 이의인, 정성주, 정정욱 이사 (이상 가나다 순) 등 14명이 참석했다. 김인수 동문 (사대 55)에게 20년 전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창립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기려 공로패가 증정되었다. 김인수 동문은 1997년 뉴잉글랜드 동창회 창립총회 준비위원장으로 동창회 창립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종전과 달리 참가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앞에 나와 마이크를 잡고 본인 소개 및 동문들에 대한 인사를 하였다. 한 참석자는 "한분, 한분 마이크를 잡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참으로 좋았다. 그동안 여러번 만났지만 잘 모르던 동문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자주 만나지 못하는 동문과 서로 좀더 친밀해 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점심 도중에 약한 비가 잠시 왔으나 행사는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또 다른 한 참석자는 "빛 속의 점심이 즐거운 추억이 되실 거라며 음식에 우산을 씌워주시던 선배님, 빗방울도 함께 먹는거야 ~ 하시며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시던 선배님, 이 모든 것이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 감동적이었다"라며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 날 모임에는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장으로 내정된 김원영 동문이 멀리 뉴욕에서 참석하여 앞으로의 동창회보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게임으로 준비한 보물찾기는 추첨으로 대신하여 많은 동문이 정성껏 포장된 조그마한 선물을 받았다.

이날 모임에는 윤상래 (수의 62)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동문 부부가 커피를, 고일석 (보건 69) 동문 부부가 수박포도 등 과일, 김문소 (수의 61) 동문 부부가 밥, 윤훈은 (공대 67) 동문 부부가 전기밥솥, 오랫동안 참석한 오세경 (약대 61) 동문은 쿠키를 만들어와서 나눠 주었다. 이영인 동문은 밥을 새워가며 시금치 나물과 숙주나물, 그리고 4개의 밥통에 밥을 만들었고, 상추를 씻고 한인마트에서 사온 40파운드의 쇠고기를 양념장에 재는 등, 동문들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김제성 (공대 87) 동문은 이날 1인 2역 을 해주었다. 김 동문은 모임 장소 입구에서 등록 명찰을 준비해 점수를 받고 이어 가져온 석탄 (코울)으로 재워온 고기를 공원 그릴에 구워 나눠 행사가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동문들은 다음 연말 송년 모임에서 재회하기를 약속하면서 이날 모임을 마쳤다.
글: 정태영 회장(문리대 71)



남가주 : 서울예고(藝高) 연주회

지난 9월 17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Zipper Hall에서는 서울예고 및 예원 동문 음악회가 열렸다.

서울예술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회장:박경숙) 주최로 열린 이 음악회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50석이 넘는 지퍼홀 객석을 가득 채웠다. 연주자들의 숙련된 연주는 음악회장을 온통 흥분과 감동의 열기로 넘치게 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음악과는 서울음대 입학률이 90% 이상이어서 서울음대를 들어가려면 서울예고를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음대 동문으로는 최혜성(플룻 98), 제갈소망(피아노 02), 양고운(바이올린 91), 이선정(바이올린

98), 감미자(소프라노 62) 등 5명이 출연하였다. 제갈소망 동문이 주최정씨와 연주한 "Felix Mendelssohn의 A Midsummer Night's Dream Overture, Op. 61(for Piano 4 hands)"는 매우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연주였다. 이선정 동문은 "Antonin Dvorak의 Four Romantic Pieces, Op. 75"를 섬세하고 예리한 테크닉으로 연주하였다.



특히 최혜성 동문이 연주한 "Fracois Borne의 Fantaisie brillante sur Carmen"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주제를 사용하여 편곡된 곡이며 "카르멘 환상곡"이라 불리우는데, 최혜성 동문의 호소력 있는 플룻 연주는 관객들을 잠시 황홀경으로 몰아 넣었다.

마지막 곡인 고봉선씨와 양고운, 제갈소망 동문이 연주한 "Felix Mendelssohn의 Piano Trio No. 2 in C minor, Op. 66"은 현악기의 표정 가득한 선율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박수 갈채를 많이 받았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2016년 예고연주회는 막을 내렸다.
글: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남가주 : 맴머스 캠핑



(1면에서 계속) 빙하시대 이전부터 살던 여러 동식물이 아직 자라고 있어 물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 또한 이곳을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원지는 대략 500,000 평방 킬로미터로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이다.

으로 동문과 가족들은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9월7일(월) 아침에 해산하였는데, 일부 하이킹팀은 며칠 더 연장 산행했고, 관광팀은Alabama Canyon과 Red Rock Canyon 등을 관광했다.

B. 오후 5시: New Shady Rest Park에서 상대 동창회(회장:강호석, 상대 81) 주관으로 베풀어진 BBQ Picnic에 이어 과녁맞추기, 제기차기, 화살던지기 등의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또한 관광버스로 여행한 동문은 모두 26명이었는데, 음악감상, 퀴즈, 재담, 심어롱 등 다채로운 순서로 가고 오는 버스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미리 준비한 배지, 메모수첩 등의 작은 선물을 동문들에게 나눠 주었다. 특히 현재 약대교수인 민일기 동문의 "약에 대한 강연"은

과녁맞추기 : 최광휘(의대70), 제기차기: 박문규(상대 89), 화살던지기: 이수현(농대88 이형준 딸) 특히 화살던지기에서는 이수현 양이 10개 중 6개를 통에 넣어 모두를 감탄케 했다. 이어 경품추첨 등

매우 유익하였고, 질문을 많이 받았다.

지종근(농대 58), 한효동(공대 58) 동문의 경험담과 재담도 많은 이들을 웃게 하였다. 버스 안에서 수고한 동문은 민일기, 양수진(부서기, 간호대 80), 한귀희(부재무, 미대 68), 한석란(서기, 미대 71), 조무상(IT위원장, 법대 70) 동문 등이었는데, 양수진 동문의 기타에 맞추어 흥겨운 분위기를 흥겹게 하였고, 조무상 동문은 준비해온 클래식 CD를 나누어 주어 일부 동문을 감격케 하였다. 프로그램 순서 진행은 홍선례(문화위원장, 음대 70) 동문이 맡았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동문들은 푸르른 대자연 속에서 산의 정기를 마시며 맑은 호수의 물빛을 눈에 담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맴머스를 떠났다.

글: 홍선례(음대70) 편집위원



남가주 : 한국어 강좌

글' 강좌에는 당초 예약된 숫자를 훌쩍 넘는 30여 한인이 참석해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우리말 다시 배우자" 열기 후관

오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이민자를 위한 성인 한국어 강좌가 시작됐다.

한인들에게 우리말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LA중앙일보 주최로 지난 1일 중앙일보 OC교육문화센터에서 개강한 '다시 배우는 우리말, 우리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 강사를 맡은 중앙일보 이종호 (인문대81, 사진) OC본부장은 "한글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말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종합교육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한글 특강을 통해 지금까지 배워 알고 있는 한글 지식을 되짚어 보고 좀 더 정확한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 이 본부장은 "국어 교과서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른 한글 뿐만 아니라 사상, 교훈 등을 내포한 명문

들이 많이 들어 있어 한글 배우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뜻으로 본 우리말'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첫 강의에서 이 본부장은 ▶우래를 알면 더 재미있는 우리말 ▶흔히 쓰이는 대표적인 기초 사자성어 100개 등을 역사적, 시대적 배경 설명을 곁들여 흥미롭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들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한인들은 "영문 한글표기법에 문제가 많다" "예전에 비해 한자 교육이 소홀해져 안타깝다" "바른 한글 사용을 선도하기 위해 언론이 나서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풀러턴 거주 김윤씨는 "평소에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알았다. 글쓰기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강좌도 전부 참석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8일 한자와 우리말 ▶15일 틀리기 쉬운 우리말(본보 김완신 논설실장 특강) ▶22일 문학작품 속의 우리말 ▶29일 역사 속의 우리말 순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부에나파크 중앙일보 OC교육문화센터(7800 Commonwealth Ave., #101)에서 진행된다.

북가주 : '야유회'

9월 10일에 Santa Clara 에 있는 Stevens Creek County Park에서 있는 북가주 총동창회 야유회가 80여 명의 동문님들께서 참여해주셔서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멀리 세크라멘토에서 2시간 넘게 운전하여 오신 동문님들과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처음으로 야유회에 온 젊은 동문님들 가족들 모두 서울대학교 선후배로 연결된 친근감으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보는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입기 2년의 신입 민병관 (공대도목과 65)이사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김범섭 (공대전자과79) 차기 신입회장(내년 1월부터)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말 파티는 12월 10일 Foster City에 있는 Crown Plaza Hotel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글: 임희례(간호73) 회장

북가주 : '버클리문학 3호' 발간



<버클리문학 3호> 출판기념회가 8월 13일 버클리 대학 동아시아학과 한국학센터에서 열렸다. 작년 2호에 이어 발간된 이번 3호에는 고은, 오세영, 권영민 교수

등 한국문인 20여명과 버클리 문인협회(회장: 김희봉(공대 68)) 교포문인 35명이 '버클리문학'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참여했다.

샌디에고

: 장학금모금 걷기대회

Post-doc 수련을 위해 꿈을 안고 미국에 온지 3년 째, 샌디에고로 이사온 지는 1년 째, 조금씩 한국 문화가 그리워 질 즈음 한진주 (자연대 99) 선배로부터 샌디에고 서울대 동문회가 활발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걷기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월 17일 대회 당일 Mission Bay 는 맑고 바람이 부는 걷기에는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며 하얀 천막 주변으로 사람들이 보였는데 '서울대학교 동문회 -San Diego' 배너를 보기 전에도 '앗, 저분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와 저희 가족을 최흥수 회장님과 이정석 부회장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인태 총무님께서 친절하게도 저와 아내, 2살 아이 셋까지 이튿표를 만들어 주셔서 붙이고는 다른 동문들이 모두 모일 때까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동문님들이 거의 다 모였을 무렵 빙 둘러서서 간단한 개인 소개를 하였습니다. 박종진 문리대 55 선배님으로부터 00학번인 저에 이르기까지 45년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동문을 미국 샌디에고에서 만났다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10시 30분 쯤에 Mission Bay의 Teletcote Shore Park에서 Sea World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명씩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걸었는데, 선배님들이 어찌나 빨리 걸으시던지, 제일 후미에서 따라간 저희 젊은 팀(?, 이진의 (92), 안세진

(99), 저(00))은 그 체력에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략 40-50분 쯤 정도 걸은 후에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얼마 후 기다리던 점심이 도착해서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떡볶이, 오징어 야채 무침, 불고기, 볶음밥 등과 각종 과일과 맥주를 포함한 여러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4개의 테이블에 나누어 둘러앉아 즐거운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걷기대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점심시간에 맞춰서 온 동문과 동문가족들도 함께 점심식사와 담소를 즐겼습니다. 점심 때가 되자 모자와

넙킨이 날아다니는 정도로 바람이 심해져서 맛을 느끼며 먹기가 참 어려웠지만, 바다가 보이는 잔디밭에서 한국 음식과 맥주를 마시는 여유를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샌바람에도 불구하고 가스 버너로 물을 끓여 만들어 낸 믹스커피를 마시며 잠시의 여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깐의 정리 시간을 가진 후 천막 앞에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아 단체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을 보다가 여러 분야에 걸쳐 개척하고 기반을 닦으신 여러 선배님들의 얼굴을 보니 뭔가 심적으로 의지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니다. 첫 모임이라 아직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의 모임에 많이 참석해 삶을 지혜를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흥수 회장님과 운영진 여러분, 그리고 단체 사진과 저희 가족 사진을 비롯하여 멋진 사진들을 찍어 주신 심상철 선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0월 야유회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10월 야유회에 모두 건강하게 뵙기를 바라며 이만 2016년 걷기 대회 후기를 마칩니다.

(글: 최진용 (자연대 00), 편집: 최흥수 (자연대 87), 사진: 심상철 (공대 81))

게시판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알립니다.

모교 개교 70주년 기념 뉴욕/필라델피아 합동 골프대회

10월 15일 12:00 PM
High Bridge Hills Golf Club
(908-638-5055)
203 Cregar Rd, High Bridge, NJ 08829
문의: 김도명(917-207-5949) 뉴욕 회장
최정용(484-467-7609) 필라 회장

남가주 동문합창단 정기공연

10월 15일 7:30 PM
The Colburn School Herbert Zipper
Concert Hall
문의: 제영혜 (714-809-4481)

워싱턴주 시애틀 10월 공개강좌

강사: 박철영 박사 (Boeing 연구소):
Composite Materials for Airplane Structure
문의: 김재훈(425-786-7723)

조경희(가정대72) 세계일주 기념 미술전시회

날짜: 10/22(토) ~ 10/31(월)
Riverside Gallery, One Riverside Sq.
Suite 201 Hackensack, NJ 07601
문의: 312-841-2983

김금자 동문 PAC (Philadelphia Arts Connection) 그룹전

11월 16일 ~ 12월 6일
Montgomery County Community College
(Central Campus) in Blue Bell, PA
리셉션: 11/30 5pm at Art Center Gallery
문의: 215-370-6681 정덕준(상대61)

워싱턴 DC : 관악세대 모임



예정된 시작 시간(오후 7시) 보다 훨씬 일찍 오신 정세근(계산통계 82) 동문과 김사무엘(국경 83) 동문부터 오후 9시가 넘어서도 참석해 주신 나영은(이류 86) 동문까지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에넌데일의 소문난 맛집 사장님이 직접 가져다주신 다채로운 저녁 식사에 동문들이 준비해온 각종 주류에, 수십년이 지난 학교 생활 이야기가 안주로 더해지면서 오랫동안 추억에 빠져드는 즐거운 시간이 가졌다. 오랜만에 만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모임 (10월 말 예정 - 추후 공지)에는 더 많은 동문들에게 홍보하여 함께 참석하자며 아쉬움을 남긴채 헤어졌다. 글: 한정민 (농대 87) 편집위원

지난 9월 22일 (목) 워싱턴 지역 (DC, MD, VA)에 거주하는 관악세대 '아크로폴리스 모임'이 류 엠(법대 89) 동문과 이상철(법대 94) 동문이 근무하는 사무실(Equitus Law Group, PLLC)에서 열렸다.

워싱턴 DC : 워싱턴 지부 35대 1차 이사회



학 미주총동창회 전 회장께서 작년도 송년 모임 때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이월금 \$2,140을 올해 송년 모임에 쓰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 35대 동창회의 감사로 공순욱(간호66) 동문과 함은성(음77) 두 동문을 추천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2부 순서인 Wine Tasting 세미나에서 Sommelier, 공순욱 전 회장이 기본적인 wine 고르는 법과 음식에 따라 어울리는 wine를 설명하고, 특히 한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wine를 직접 tasting해보았다. 참석한 동문들의 관심이 많은 질문과 설명이 이어지고 김동훈(법대 56) 이사께서 간장 선물세트를 참석하신 분들께 선물해 즐겁고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워싱턴 동창회 (회장 안선미(농67))의 제 35대 제 1차 정기 이사회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0일 (토) 오후 6시 비엔나에 위치한 우래옥에서 열렸다. 1부 이사회 후에는 'The Basic to Wine & Food Pairing'의 2부 순서가 이어졌다.

회의를 통해 2016-2017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한의생(수의60) 특별관리 기금 및 장학위원장이 워싱턴 동창회 장학위원회의 장학생 선발 경과보고를 하였다. 또한 서윤석(의대62) 의과대

송년 잔치는 12월 11일 (일) 6시 The Westin Tysons Cor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에서 열릴 예정이며, Baby Sitting이 제공됨으로 젊은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글: 한정민 (농대 87) 편집위원

남가주 : 볼리비아 수교 기념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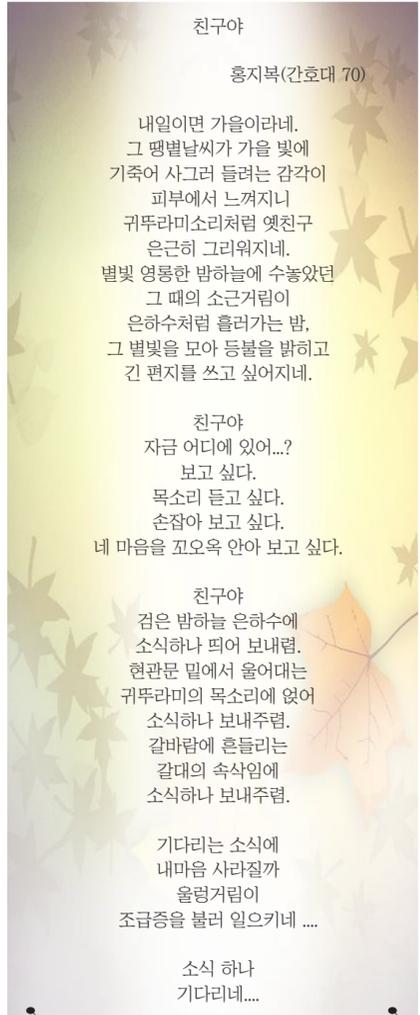


지난 9월 11일 볼리비아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LA 한국 문화원이 후원하는 Bolivian Community Family Day Event(볼리비아 커뮤니티 가족 축제)가 Griffith Park (4730 Crystal Springs Dr, Los Angeles, CA 90027)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유희자 동문은 4살 때부터 정무용씨에 서반아 무용을 사사하고, 6살 때 첫 독무를 신 카나리아와 같이 공연하였으며 김순성, 인간 문화재 이매방, 강선영씨에 고전 무용을 사사했다.

한국과 볼리비아의 수교를 기념하기 위하여 한인 커뮤니티를 특별히 초청하였으며 유희자(음대 68) 국악 무용연구소가 대표로 초청되어 오후 3시에 김무, 난타와 오후 4시 30분에 장고춤과 신나는 사물놀이 선보여 큰 반응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최초로 파견한 문화 사절단의 일원으로 뽑혀 2개월 동안 한국 고전무용으로 일본 전국을 순회 공연한 바 있다. 현재는 유희자 국악 무용연구소 소장으로서 후진들을 양성하며 활발한 공연활동을 벌이고 있다. 웹사이트: www.hizakordance.com 글: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친구야
홍지복(간호대 70)
내일이면 가을이라네,
그 땀별날씨가 가을 빛에
기뻐 사그라 들러는 각각이
피부에서 느껴지니
귀뚜라미소리처럼 옛친구
은근히 그리워지네.
별빛 영롱한 밤하늘에 수놓았던
그 때의 소근거림이
은하수처럼 흘러가는 밤,
그 별빛을 모아 등불을 밝히고
긴 편지를 쓰고 싶어지네.
친구야
지금 어디에 있어...?
보고 싶어.
목소리 듣고 싶다.
손잡아 보고 싶다.
네 마음을 쫓아오아 보고 싶다.
친구야
검은 밤하늘 은하수에
소식하나 띄어 보내렴.
현관문 밑에서 울어대는
귀뚜라미의 목소리에 없어
소식하나 보내주렴.
갈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속삭임에
소식하나 보내주렴.
기다리는 소식에
내마음 사라질까
울렁거림이
조급증을 불러 일으키네
소식 하나
기다리네....

친구 지복이가*****
수술을 하고 병가로 침상에 있다보니 컴퓨터를 뒤적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란 조금 지난 동영상이 보게 되었어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장에서 육영수 여사가 총상으로 운명을 달리한 사건을 다룬 동영상이었어요. 그때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순간을 보기도 했지만, 우린 그렇게 노란 순간을 말하지 않고 지나왔지요. 70년대가 저물기 전에 미국으로 왔고, 결혼과 자식들, 일들에 생각날 듯 말 듯 알았던 친구들이 계절따라 어른거리지요.
2014 홈커밍데이 참석차 고국에 갔을 때, 그 친구를 봤어요. 많은 이야기들, 어려운 때를 많이 넘긴 것을 짐작으로 알고, 그때 호적에 붉은글씨로 올려진 억울한 대명사를 지우기 위한 법적 일을 할 것이라 했는데, 내 생활이 바빠서 알아보지도 못했고, 미안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마음에 밟혔나봐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었지만 하다가 하다가 지칠 때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어찌라도 다독여줬으면 그런 후회도 있고... 쉼이 새로워서 아직 한글쓰기가 어려워 않아 셀프로 간절하게 쓰다보니, 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써본 적은 없는데, 때로 생각과 손끝이 이상한 것을 하고, 혹시 우리시대의 감정을 공유하는 분들이 있을까 용기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기분에, 그리운 옛친구 한 두명은 가을빛에 날아보고 싶어서...

내 가슴 속 한권의 책

저자가 거창고 졸업생을 3년간 찾아다니며 인터뷰 한 내용을 엮어 만든 책이다.

거창고는 시골에 있는 학교이지만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 일단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교훈과 같은 '직업 심계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닦아주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논어(論語)

이 세상의 많고도 많은 책들중에 나에게 최고의 책을 꼽으라 하면, '논어'라 하겠다. 제자들이 스승 공자의 말씀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책은 한번 읽고마는 책이 아니고, 평생 옆에 두고, 보고 또 보고 음미해보며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가는 책이다. 어떤 말씀은 오늘의 감각에 썩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사려를 요한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 열을 골라서 동문들과 나누고싶다.



1.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2. 己所不欲 勿施於人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시키지) 말라.
3.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함이 없으면 멍(공허)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는 것이 없으면 위험해진다.

최근에 읽은 여러 책중에서 유익했던,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책 몇 권을 적어봅니다.

1. The Age of Entanglement: When Quantum Mechanics was reborn (by Louisa Gilder) / 번역판: 얽힘의 시대 -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양자의 얽힘현상의 개념을 파헤치는 과정을 대화로 재구성한 양자역학의 역사 (Louisa Gilder저; 노태복 역; 도서출판 부키 (Bookie))
2. Ludwig Wittgenstein: The Duty of Genius (by Ray Monk) / 번역판: 비트겐슈타인 평전 - 천재의 의무 (Ray Monk 저; 남기창 역; 필로소피 출판)
3. 다산 선생 지식 경영법 -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제지학 (정민지; 김영사 출판)
4.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가족과

하나하나 맛있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 어느 하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계명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눈치채셨는가?

행복에 대한 색다른 가치관이다. 남을 이기고 높이 올라서는 것, 남 보다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섬기며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거창고 교육의 핵심은 '자율'이다. 즐기며 하는 사람은 절대 따라 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인성교육과 학업성적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두 마리 토끼라고 세상은 말한다. 하지만 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자율'이라고 거창고는 말하고, 또 증명해 보인다.



김철우 (공대 79)

4. 過猶不及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람과 같다. (지나침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종종, ' - 모자람만 못하다'로 받아드린다. 과식해서 배탈이 난 경우와 소식한 경우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된다)
5.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불환인지불기지 환부지인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
6.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군자지어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군자는 세상의 모든 일에 임하여 특별히 옳다, 맞다 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특별히 옳지 않다,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없이 옳바름을 따라야 한다.
7. 不怨天 不尤人 (불원천 불유인) 하늘을 원망치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
8. 不而不改 是謂過矣 (불이불개 시위과의) 잘못하고서 이를 고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잘못이다.
9.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10.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흥어시 입어례 성어락) 시에서 도의적 감흥을 들우고, 예에서 규범을 바로 세우고, 즐거움을 누리에서 삶을 완성한다. 김상순 (상대 67)

-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들 (정약용 저; 박석무 역; 참비 출판)
5. Rolling Thunder (by Doug Boyd) / 번역판: 구르는 천둥 - 자연과 영혼을 치유하는 인디언의 지혜, 체로키 인디언 치료사의 마음과 영혼 (Doug Boyd저; 류시화 역; 김영사 출판)
 6. Hermann Hesse - Die Welt im Buch (by Hermann Hesse) / 번역판: 헤르만 헤세 - 우리가 사랑한 헤세, 헤세가 사랑한 책들 (Hermann Hesse 저; 안인희 역; 김영사 출판)
 7. Year Zero - A History of 1945 (by Ian Buruma) / 번역판: '0년 - 현대의 탄생, 1945년의 세계사' (Ian Buruma저; 신보영 역; 글항아리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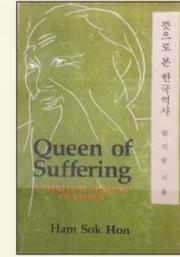
위나 다독을 하는 편이라 독후감을 쓴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필요 하시면 (대부분의 책들이 서문에 잘 소개하고 있으므로) 책 소개 정도는 할수 있겠지요. 김재훈 (공대 72)

Queen of Suffering

I strongly recommend all the Korean people including Korean Americans living in this country to read the book entitled "Queen of Suffering (A Spiritual History of Korea)"

written by Ham Sok Hon and translated into English by E. Sang Yu at least one time during their lifetime irrespective of what kind of religion you practice in their everyday routine.

박취서 (약대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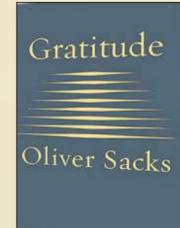


선배님이 권해서 읽었는데 제 나이가 70을 넘어서 그런지 저자의 마음이 구절구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실던 종던 죽음을 준비해야할 70, 80대를 넘으신 분들에게 권하고 싶네요.

"There will be no one like us when we are gone, but then there is no one like anyone else, ever. When people die, they cannot be replaced. They leave holes that cannot be filled, for it is the fate—

the genetic and neural fate—of every human being to be a unique individual, to find his own path, to live his own life, to die his own death. I cannot pretend I am without fear. But my predominant feeling is one of gratitude. I have loved and been loved; I have been given much and I have given something in return....."

(Oliver Sacks 의 "Gratitude" 에서 발췌) 박은숙 (미대 62)



한우성 작가의 "아름다운 영웅 김영욱 대령" 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전쟁영웅이기 전에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락은 "내 밑에 있던 5백만 군인중 최고의 군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승산이 없는 작전은 제아무리 높은 상관의 명령이라도 끝까지 불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프랑스, 이태리,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최고의 훈장은, 그 밑에서 싸웠던 부하들의 마음과, 전쟁후 그가 도왔던 수많은 불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깊은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희 (미대 68)



유란시아서 독후감

직장을 잡은 이후로는 각자 직업에 관계된 외에는 따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이 책을 읽으면, 지식보다 지혜를 추구하고, 신조에 동의하기보다는 믿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노벨 화학상(1993)을 수상한 캐리 멀리스도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인용하였고 이 책을 권한다. 대공황 이전에 시카고에는 자면서 중얼거리는 어느 환자(Sleeping Subject)가 있었는데 무엇이든지 물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새들러 박사는 토론회를 조직하고 질문을 모았다.

대로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을 자세히 4부에 적었다. 그러나 이 책은 어느 특정한 종교 집단에 속하지도 않고 그런 집단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 도교, 모하메드교 등 여러 종교는 각 민족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믿음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한 종교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는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종교도 불완전하고 다른 종교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한다. 인생에서 최대의 질문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장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계속 사는가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과학적 방법으로 영원히 증명할 수 없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이가 얼마나 따위의 실없는 질문도 있었지만, 차츰 토론하는 우주와 하나님과 예수와 현자들에 관하여 물었다. 거의 20년에 걸쳐서 그를 통해서 하늘 존재들이 대답한 것을 모은 것이 이 책이다. 그 환자는 잠이 깨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다고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의식이 생기면 물질 몸에 비물질 혼이 태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 5:48)고 하였고, 우리를 도우려고 조절자(하나님의 영)를 각 개인의 지성 속에 깃들라고 보낸다. 인간의 근본적 역할(敎諭)은 사람이 유한하지만 그에게 무한의 불꽃이 깃들어 있고, 자연 속에 살지만 자연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부는 온 우주의 조직과 하늘 존재들에 관한 글이다. 2부는 지역 우주와 거기에서 일하는 존재들에 대한 글이다. 3부는 지구의 진화와 여러 종족의 선사시대 역사를 적었다. 아마도 토론회에서 예수에 관하여 질문이 많았던 듯하고, 인간 및 하늘 존재들의 기록을 토

기도에 관한 중도자(지구의 영구 시민)의 조언은 놀랍다: 하나님은 사람의 태도에 응답하고, 말에 응답하지 않는다...물건이 아니라 오직 가치있는 것을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할진저. 최은관 (상대 64)



만만 기부

기부? 만만 합니다.

매월 만원(\$10)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1 명의

만원(\$10)이 모이면

천원의 식사 10번



10 명의

만원(\$10)이 모이면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16시간



10,000 명의

만원(\$10)이 모이면

선한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2015년 6월부터 학생들의 식비부담을 덜어주고자 학생회관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매월 30만원(\$300)

X

*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nu.or.kr에 방문하시어 미주재단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거나
LA사무소 전화 +1-213-435-1974,
이메일 america@snu.ac.kr 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Facebook 오픈!

행복한 나눔을 곁에 두는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습관, 만만한 기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www.facebook.com/giving2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Y.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1-212-768-9144 Fax:+1-212-768-4494 E-mail:kenneth@klcpagroup.com

L.A. 3699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Tel:+1-213-435-1974 Fax:+1-213-739-0190 E-mail:america@snu.ac.kr



올해는 여름이 유난히도 덥고 길어서 가을이 언제 오려나 했는데, 어김없이 자연의 시간은 가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다. 이렇게 가을이 오면 생각나고 가을 분위기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곡이 있다.

바로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 (Clarinet Quintet in B minor, Op. 115) 인데, 평생 독신으로 지낸 브람스에게는 특유의 우수에 찬 분위기가 있다. 물론 그의 곡 중에도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곡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곡들이다. 그래서 내게는 가을과 함께 떠오르는 작곡가가 브람스이기도 하다.

내가 이 곡을 좋아하게 된 건 석사 졸업을 앞두고 치뤄야 했던 일명 "100곡 시험" 때문이다. 텅플 음대는 졸업 전에 학교에서 지정한 클래식 명곡 100곡을 듣고, 그 주제 부분을 듣고 곡명을 써내는 듣기 시험을 치뤄야 했다. (다행히 곡명이 적힌 리스트는 주어져서 곡명을 외우진 않아도 되었다.) 말이 쉽지 중세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곡들 중에 성악곡이 아닌 곡들은 처음 듣는 곡도 상당히 있었고, 교향곡이나 기악곡들은 대부분 3-4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듣는 것도 큰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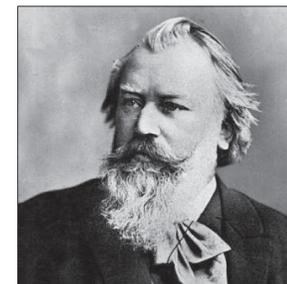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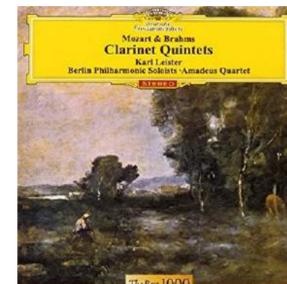
거기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수잔나 역을 맡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 역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였다. 그래도 졸업은 해야하니, 시간을 쪼개어 같은 장르의 곡들을 묶어서 비교해 가며 열심히 들었다. 처음엔 시험을 패스해야 한다는 급박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곡들을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음대를 졸업했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선생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른 곡들이니 다들 정말 명곡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모짜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와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는 이런 곡들을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아름다운 곡들이었다. 특히 브람스의 곡은 첫 소절을 듣는 순간 반하고 말았다. 아름답게 흐르는 현악기들의 애절한 선율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길로 당장 CD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애청하고 있다.

이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1897) 의 말년에 씌어진 곡으로 클라리넷 연주자, 리하르트 뮐펠트 (Richard Mühlfeld 1856-1907) 를 만나지 않았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곡이다. 브람스는 1890년에 이미 작곡에서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 이듬해 마이닝엔 (Meiningen) 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열린 뮐펠트의 연주회에 갔다가 그의 연주에 큰 감명을 받고, 그를 위해 클라리넷 곡들을 작곡하기로 마음먹었다.

1891년에 이 클라리넷 오중주와 클라리넷 삼중주를 작곡했고, 3년 뒤에는 두 개의 클라리넷 소나타까지 무려 네 곡에 이르는 클라리넷을 주 악기로 하는 곡들을 뮐펠트를 위해 썼다. 역시 예술가에게는 영감을 줄 뮤즈가 있어야 하나 보다. 이 클라리넷 오중주는 기존의 현악 4중주(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편성에 목관악기인 클라리넷이 더

절하게 흐르는 현악기들의 주제 위로 비상하는 클라리넷의 선율은 마치 우수의 심연에서 길어올린 애달픈 마음 한 자락과도 같다.

웬지 모를 고귀하면서도 쓸쓸한 그 분위기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주 로맨틱하지만, 너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알뜰한 감정에만 호소하는 값싼 감상이 아닌, 빈틈없이 균형잡힌 형식에서 나오는 절제된 감정과 아름다움이 이 음악 안에 있다. 많은 이들이 제 2악장을 이 곡의 백미로 꼽지만, 나는 첫 악장을 가장 좋아한다. 이 주제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데,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모호하듯이 발전되어 가는 전개가 듣는 이의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원지 모를 고귀하면서도 쓸쓸한 그 분위기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주 로맨틱하지만, 너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알뜰한 감정에만 호소하는 값싼 감상이 아닌, 빈틈없이 균형잡힌 형식에서 나오는 절제된 감정과 아름다움이 이 음악 안에 있다. 많은 이들이 제 2악장을 이 곡의 백미로 꼽지만, 나는 첫 악장을 가장 좋아한다. 이 주제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데,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모호하듯이 발전되어 가는 전개가 듣는 이의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심희진 (음대 90)

느린 제 2악장에서는 목가적인 선율 속에서 노년에 이른 작곡가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는 듯, 평화롭지만 고독하고 쓸쓸한 분위기다. 빛바랜 사진첩처럼 아련한 분위기 속에 벌써 치고 나오는 클라리넷의 정열적인 선율은 평범한 일상에 찾아온 반전처럼 듣는 이를 즐겁게 한다. 이어지는 3악장은 곡 전체에서 가장 밝고 밝은 분위기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오래된 친구들이 도란도란 나누는 정겨운 대화 같은 도입부를 지나면, 경쾌하고 빠른 집시풍의 음악이 이어진다.

마지막 4악장은 주제와 변주곡 형식으로 이는 브람스가 즐겨 쓴 형식이기도 하다. 주제를 다루는 거장의 원숙함과 노련함이 묻어나는 가운데, 때로는 휘몰아치듯이, 때로는 잔잔하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단조와 장조의 경계를 오가며 점점 감정이 고조되어 가다, 첫 악장의 주제가 처음엔 현악기에서 그 다음엔 클라리넷에서 되풀이되며 다시금 처음의 애절함으로 돌아간다. 그리고는 사라지듯이 찾아들다가 강렬한 코드 하나로 끝을 맺는다.

곡이 명곡이니만큼 명반도 많이 나와 있지만, 내가 소장한 CD는 클라리넷 주자 David Shifrin과 Emerson String Quartet이 함께 한 음반이다. 템포도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고 악기 간의 균형도 훌륭해서 조화로운 연주를 들려준다. 같은 장르에서 이 곡과 쌍벽을 이루는 모짜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가 같이 수록되어 함께 들을 수 있는 건 보너스다. 모짜르트의 곡은 명랑하고 활기찬 봄의 기운이 느껴져 브람스의 곡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어 듣기에 더욱 좋다. 명반 중에 Karl Leister와 Amadeus Quartet의 음반과 50년이 지나도록 명반 리스트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Leopold Wlach와 Vienna Konzerthaus Quartet의 음반도 빼놓을 수 없다.

연주 시간은 35분에서 40분 정도로 짧지는 않지만, 가을의 운치를 느껴보기에 긴 시간도 아니다. 깊어가는 가을 밤, 이 음악과 함께 각자의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편집위원>



New Book

[신간 소개] 놀라운 종이비행기



어린이를 위한 종이접기 비행기책이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저자는 56학번의 공대 전자과 동문 이경화 박사(사)이다. 출판사가 미국 뉴멕시코 대학 (University of New Mexico) 출판국(UNM Press)이라는 것은 교정이나 제본, 편집 모든 부분에서 전문적인 책임을 보증해준다.

30여종의 종이비행기를 수록했는데 종이비행기 하나 하나마다 실제 비행기와 짝을 (Counterpart) 짓고

실제 비행기도 소개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항공기와 관련된 과학과 역사 등의 지식도 함께 전달한 책으로 뉴멕시코주 상징 유니마크와 한국의 태극마크도 사용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봤다. 어린이의 창조성을 더 발휘하기 위해 가위를 쓰지 않는 오리가미의 고정 관념을 벗어난 창의적인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제까지 출판된 종이비행기책과 월등히 다른 점은 대부분의 종이비행기가 실제 비행기와 달걀 디자인한 점이다. 2차대전 당시의 P-38 비행기에서 최신 전투기 F-22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실제 비행기와 닮은 종이비행기 접는 방법을 그림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종이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잘못 소개한 책이 많은데 이를 바로 잡으려고 앞부분에 이 이론을 설명했고 뒤에는 미술적 데코레이션을 포토 카피해서 쓸 수 있게 Template 디자인도 부록으로 넣었다는 것이 또한 이책의 특징이다. 이 책은 현재 Amazon.com 을 위시해서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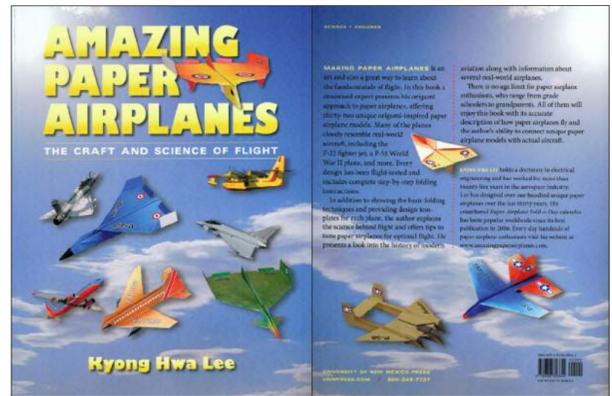
저자는 그의 종이비행기 디자인을 홈페이지(amazingpaperairplanes.com)를 통

해서도 여러해 전부터 소개해 와서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종이접기 애호가들에게 그의 특수한 디자인이 잘 알려져서 지금도 하루 500-1000명의 방문자가 그의 홈페이지를 계속 방문하고 있다.

이 책을 발간하기 전에는 매일 한장씩 달력의 종이로 비행기를 접을 수 있게만 된 종이비행기 접기 달력을 2006년부터 Accord Publishing을 통해 매년 출판했다. 2017년도 달력도 Paper Airplane: Fold-A-Day 2017 Calendar라는 이름으로 David Mitchell과 공저로 Andrews McMeel Publishing을 통해 출판되어 시판중에 있다.

저자는 뉴멕시코 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1975년 취득했고 Gulton Industries와 Bell Laboratories, 이어서 Goodrich Aerospace에서 우주항공 계통의 전자회로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퇴직 후에는 우주항공 전자계통의 전문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노래 '고향의 봄'을 작사한 이원수 아동문학가의 장남이다. 그의 모친도 동요 '오빠생각'을 작사했다. 현재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시에 거주하고 있다.

(저자 이경화 E-mail: khlmm@comcast.net)



[미술] 신화 속에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는 미술이야기

인간을 만든 신 프로메테우스, 인간의 은인 프로메테우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믿기 힘들고 황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함이 신화도 처에서 묻어나고, 정의로운다는 힘과 힘의 대결, 사랑에 대한 맹목적 쟁취, 그에 따른 질투와 복수 등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훑쩍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구 사람들과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읽어야 할 만큼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서구의 여러 문학 작품이나 미술작품 등의 예술분야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이 자주 등장하며 현대의 시인이나 화가, 조각가 등 예술분야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너스의 탄생이라든지, 세익스피어의 작품이라든지 신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는 문학과 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연설이나 신문, 대화 등에서 자주 비유로 등장하는 판도라의 상자나 나르키소스의 수선화, 마이다스의 손, 이칼레스 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디세이아 등은 자주 등장하는 말이며 아테나(영어로는 미네르바,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기에 지혜의 광장이란 뜻으로 미네르바는 바로 서울대 광장 이름이기도 하다), 에로스, 에코, 디오니소스, 아틀라스, 에르메스 등 신들의 이름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스포츠 상표 나이키(NIKE)는 승리의 여신 니케(Nike)에서 유래되었고 스타벅스 로고인 여성

의 얼굴은 달콤하고 매혹적인 요정 세이렌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현실과 초자연의 세계를 오가는 무수한 사건들은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듯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구 문화와 역사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어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신화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고 기원전부터 기원후 3-4세

사람들은 왜 신화에 열광하는가?



기에 걸쳐 널리 퍼져있던 전설의 세계가 오늘날의 세계에 그대로 침투되어 같이 숨쉬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가 대지에서 흙을 조금씩 떼어내 물로 반죽하여 신의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다른 신들이 빛은 것은 다 얼굴을 밑으로 향하고 지상을 바라보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이 빛은 인간에 직접자세를 주었으므로 인간만은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별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아무 능력도 분배받지 못하고 놓여있었다. 이에 제우스는 인간을 없애고 더 훌륭한 창조물을 만들려고 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를 보고 인간을 지켰을뿐 아니라 제우스의 변개에서 몰래 불씨를 훔쳐 인간에게 불과 지혜를 같이 전해 주었다. 이것을 알게 된 제우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잡아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카우카소스 산에서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쇠사슬(즉 누구도 끊지 못하는)로 묶어두고 독수리에 갇힌 채 갇혀 먹히게 하였다. 갇힌 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쪼아 먹어도 밤새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 쪼아먹히는 끔찍한 고통이 되풀이되었다. 신중의 최고 신 제우스에 대한 반항은 제일 큰 불경죄였다.

당시 불은 단순히 음식을 익히는 도구로서의 불이 아니고, 시작과 생명력을 뜻하는 상징이었고 곧 이것은 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불과 지혜 두가지를 인간에게 준다는 것은 인간이 감히 신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불과 지혜를 사용하게 된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이처럼 인간을 계속 보살핀 프로메테우스는 지혜롭고 선견지명이 뛰어났다.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는 '먼저 알고 있는 사람' 즉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후에 프로메테우스는 영웅 헤라클레스가 독수리를 쏘아 죽이고 구해준 뒤 제우스와 화해하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 신들을 후견하는 예언자가 되어 신들과 함께 영원히 살았다. 신도 깨뜨리지 못한 의지로 언제나 인간의 편에 선 프로메테우스. 우리는 인간적, 창조적 행위나 정신을 '프로메테우스 담다'고 한다.

괴테가 젊은 시절에 쓴 시 '프로메테우스'를 읽으면 인간에 대한 찬가로 언제나 가슴이 뻥! (헨델의 음악도 있다)



“76년에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니 40년이 흘렀나 보다. 여러 생각 끝에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은퇴하기로 하고 그 기념으로 북부동반으로 14개국을 다녀 오기로 했다. ‘와이프와 그것도 50일간?’이라는 친구들의 조롱섞인 핀잔을 뒤로 하고 화가인 집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정을 짜냈다. 동에서 서로,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은 퇴후 평소에 꿈꿔오던 세계일주를 바르셀로나, 파리, 베를린, 비엔나, 오슬로, 스톡홀름, 핀란드의 투르크, 이스탄불, 두바이, 몰디브, 방콕, 피지, 오사카, 호주 멜버른, 시드니, 캔버라를.

30년만에 다시 가본 바르셀로나는 가우디 밀리의 도시로 변모해 있었지만 과도, 해초등의 모습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이 천재의 작품도 1세기 전에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으며 당연히 수용되지 못했다고 한다. UNESCO 선정 문화재 보호에 개인이 7개나 선정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하며 가우디의 도시, 가우디의 작품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천재 조각가란 관객이 넘치며 도시 전체가 떠받들고 있는 느낌이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화가 피카소, 미로와 함께 조각가 가우디등 분명 예술의 천재들을 배양해 한 바르셀로나의 토질을 생각해 본다.

파리에서의 관광은 무랑루즈쇼, 리도쇼 보다는 회화를 더 보기 위함이었다. 몇몇 본 루브르박물관 보다는 오히려 오르세 미술관에 시간을 더 할애했으며 인상주의 화가 작품들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볼 수가 있어서 잘한 판단이었다. 무너진 베를린 장벽이 인상적이었으며 그 벽에 미안하게도 집사람과 같이 여행 기념 자국을 내놓고(?) 왔다.

오스트리아 요한 스트라우스가 생전에 주로 공연했다는 장소 바로 첫열 제일 가운데에서 라데츠키 행진곡을 감상한 것은 오래 추억에 남을 것 같다. 귀로만 들던 유명 음악가들이 한 묘지공원에 같이 묻혀 있는 것도 신기했으며 이번 여행에서 다시 오고 싶은 곳 하면 주저없이

이 곳 비엔나를 택하고 싶다.

노르웨이에선 작은 기차, 버스를 이리저리 타고 본 피오르드식 호수는 자연현상에 대한 신비를 더해줬으며 뉴저지 집에서 노르웨이 시골의 작은 기차, 버스를 내 마 음먹은대로 사전 예약하여 준비할 수 있다는 게 '80년 세계 여행을 처음 해본 그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중간에 산악열차가 정차하여 큰 폭포를 보는 동안 선녀가 나타나 음악에 맞추어 폭포 사이로 춤을 추는 장면은 참 신선하면서 기억에 남았고 우리도 이런 식의 관광 테마를 주어 개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규천(산대73)/조경희(가정72) 부부 @시드니

또한 베르겐에서의 밤11시 백야 사진은 잊을 수가 없다. 하늘이 파랗다. 사진을 받아본 모든 이들이 극찬했다. 돌아오는 침대 기차에서 아들로부터 HAPPY FATHER'S DAY 전화를 받았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들이지만 오늘날은 속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광지가 스톡홀름 한 곳에 몰려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출발한 스웨덴은 실제 해보니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여러곳을 볼 수 있는 모양새라 정말 그랬다.

여행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곳이 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방문한 곳이 핀란드였는데 여기서 그랬다. 사람들

사귀다 보면 '평소 이런 성격이니까 내가 은퇴한다고 하면 쳐다 보지도 않을거야'라고 예상했던 과거의 까다로운 거러선 부부가 투르크 공항에 개인 요트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 부부를 픽업하여 무인도 여름 별장에 초대하여 3박의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다시 유사한 경험을 하려 해도 힘들 것이다. 핀란드식 사우나, 서머 데이에 이웃 섬 집에 초대되어 그들과 같이 음식과 풍습을 즐기었던 기억이 새롭다. 우리 식으로 술을 마시면서 권주가라고 스킨송을 돌아가면서 부르는데 우리 보고도 부르란다. 분위기가 리드미컬한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그들과 어울리며 놀았던 것은 보통의 여행에서는 누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터어키는 여러 민족과 종교가 휩쓸려 지나가고 그런 가운데 각종의 유물 유적이 참 많은 곳이다. 일출 시 경험한 열기구 풍선 여행은 강한 인상으로 남았으며 한창일 때는 몇 만의 인구가 종교 박해를 피해 살았다는 지하 도시...고온다습한 아프리카의 라고스에서도, 기온이 섭씨 50도가 넘는 사우디의 리야드에서도, 흑한의 알라스카에서도 인간이 자기가 사는 곳에 적응하며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 사회성의 동물이라 그렇게 한 것인 아니면 영화 '빠빠용'에서 터스틴 호프만의 캐릭터로 현실에 안주해서 그런 것인 한번은 사색하게 하는 부분이다. 정확히 하루 전에 내일 그곳을 통과해야 하는 이스탄불 공항에서 폭탄이 터져 유혈이 난지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중에 발생한 것이었지만 지나온 프랑스, 독일 심지어 태국에서조차 폭발 사고가 있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하루하루의 일과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

두바이는 섭씨40도라는 기온을 실제 처음 접해본 아내가 거리에서 거의 쓰러질 것 같아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 쉬었다. 이 도시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번은 넘게 방문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 관광을 해 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세상사가 맘대로 되지 않나 보다. 역시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다. (1/2 계속)



베르겐의 백야 (밤 11시)



Finnish Sauna



노르웨이 피오르드 호수



바르셀로나 가우디밀리의 건축물



오르세 미술관



비엔나 유명 음악가들의 묘지들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 합창단 정기공연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CHORALE OF SOUTHERN CALIFORNIA



SoCal SNUA Chorale

Saturday • 7:30PM • October 15 • 2016

The Colburn School Herbert Zipper Concert Hall

200 S. Grand Avenue, Los Angeles, CA 90012



Conductor 장진영



Accompanist 김언정



Violin 김유은



Accordion Katrina Saroyan

SPECIAL GUEST

SPECIAL GUEST

주최 |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합창단

후원 |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과학] 종이접기 응용한 소프트로봇... 모교림 세계대회 우승

뱀같이 부드러운 생명체 본뜬 로봇 조규진 서울대교수팀 伊대회 1위 "NASA에 제안해보라 권유받아"

조규진(공대 92)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팀은 지난달 30일 이탈리아 리보르노에서 열린 '제1회 로보소프트 그랜드 챌린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4일 밝혔다. 소프트로봇이란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소재를 이용해 뱀이나 문어 같이 부드러운 생명체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본떠 만든 로봇을 뜻한다.

이번 대회는 유럽연합(EU) 공동 연구 프로젝트 그룹 '로보소프트' 주관으로 열렸으며,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브리스톨대, 미국 터프츠대와 콜로라도대, 싱가포르 난양공대, 이탈리아 과학기술원(IIT) 등 8개국 12개 기관에서 23개 팀이 참가했다.



물 아르마딜로를 본떠 만든 스누맥스(SNUMAX)와 달팽이처럼 더듬이가 늘어나는 S.I.R.(Snail Inspired Robot·달팽이모사로봇) 등 로봇 두 대를 들고 출

물 아르마딜로를 본떠 만든 스누맥스(SNUMAX)와 달팽이처럼 더듬이가 늘어나는 S.I.R.(Snail Inspired Robot·달팽이모사로봇) 등 로봇 두 대를 들고 출

전했다. 대회 규정상 무게가 20kg으로 제한돼 있어 이들은 가벼운 폴리머와 천, 플라스틱 스프링 등으로 만들었다.

스누맥스는 서울대의 영문 머리글자와 영화 '매드맥스'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장애물 피하기와 계단 오르기, 물체 집기와 같은 6개의 미션을 모두 통과한 유일한 로봇에 올라 우승을 견인했다. 특히 바퀴에는 종이접기 원리를 적용해 필요에 따라 바퀴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조 교수는 "화성 탐사 로봇 개발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바퀴 구조다. 스누맥스의 바퀴를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제안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소프트 로보틱스라는 신생 분야에서 한국의 실력을 널리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국악] 가야금



장경선(음대89)

가야금은 신라시대 3현(가야금, 거문고, 향비파) 중에 하나로서, 서기 6세기경 가야국의 가실왕이 제작했다고 전해지며, 오동나무 판 위에 열두줄을 엮어 타는 한국의 대표적인 현악기이다. 삼국사기에는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의 정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역사적 고찰로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악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신라 진흥왕 12년의 기록을 보면 악성 우륵은 가야국 사람으로 상가라도, 하가라도, 사물, 물해, 달기 등 모두 열두곡이나 되는 곡을 만들었으며 나라가 망하자 그의 제자 이문과 더불어 신라로 망명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진흥왕 13년에는 우륵이 왕명을 받들어 국원(지금의 충주)에서 계고에겐 가야금을, 범지에겐 노래를, 만덕에겐 춤을 가르쳐 널리 전파시켰는데, 특히 가야금은 멀리 일본에까지 전해져 신라금이라 불리웠으며, 그때의 악기가 지금도 나라의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다.

가야금은 삼고시대 이래로 한국 전통음악의 연주에 매우 중요하게 쓰여온 악기이다. 20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양식의 음악을 연주하는데 편리하도록 본디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줄의 수, 줄의 소재 등이 달라진 여러 종류의 가야금이 쓰이고 있다. 가야금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궁중음악이나 안

만하고 우아한 풍류음악을 연주하는데 편리한 풍류가야금, 풍류 가야금보다 약간 작고 줄과 줄사이의 간격을 좁혔으며 풍류음악보다 빠르고 기교적이며 다양한 표현을 요하는 산조 가야금, 화성의 도입과 함께 저, 중,고음으로 음역을 나누어 가야금 앙상블을 하는 삼중주 가야금, 청이 다른 음악을 한 무대에서 한 가야금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줄의 수를 늘린 18현(17현) 가야금, 음역을 넓힌 21현 가야금, 이 가야금들은 모두 5음 음계의 조율로 연주하므로 악기의 외형은 조금 바뀌어도 그 조율체제는 원형 가야금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남북한 음악의 교류, 일본 중국 등과의 음악 교류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전통 음악과는 구조가 다른 음악을 집단으로 연주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7음 음계로 조율되는 22현 가야금이 악단(국립국악관현악단)에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개인 연주자들은 22현보다는 25현 가야금을 더욱 편리하게 받아들여 쓰고 있는데 이는 가야금 음악의 연주 역사에 새로운 연구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북한, 연변에서는 7음 음계로 조율한 21현, 23현, 33현(옥류금) 가야금 등이 쓰이고 있어서 개량 가야금에 관심을 가진 연주자들이 주로 연변지역의 연주자들로부터 그 연주법을 배운다든지 또 직접 연변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음악, 새로운 악기를 적극 수용해서 우리 음악의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비판적 수용을 거듭해야 함은 과거, 현재의 음악 역사가 주는 주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참고 문헌: 황병주 가야금 교본 김해숙 25현 가야금 교본



정악 가야금 산조 가야금 18현 가야금 21현 가야금 25현 가야금

손재욱 회장님,
저의 남편 오병헌(문리대 정치학과 44)이
후원금을 생전에 보내려고 하던 중 늦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경황이 없던 중 약화로
많이 회복되어 기뻐하던 중 넘어져서 18일간
중환자실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소천하였습니다.
만 90세 직전이었습니다.
고통없이 평화로이 가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들의 위로와 후의를 감사합니다.
조심조심하셔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영수 (화학과 54, Lexington, MA)드림



제언 10월호를 읽은 독자들의 소감과 제언을 기다립니다: news@snuua.org

동창들이 연로하고 바쁘니 회비/후원금 봉투만 보내는 것 보다 (x 기본 나쁨)
1. 정중하게 동창회 사정을 알리는 문안과
2. 개별동문의 주소가 박힌 편지를 보내주면 합니다. 우리 동창들은 빛지고 못 삽니다. 시카고에서 김정수(문리대 69)

동창회 사무국 답변: 참 좋으신 제언입니다. 그런데 개별 편지와 개별 봉투를 인쇄하고, 정규 우편으로 보내려면 최소한 5,000 여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7,000 여부의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는 수고는 물론 봉사로 하구요.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im & Kang CPA's (김경무 강경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c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axa-advisors.com

이영일(문리대 53) Howard Y. Ree 3700 Wilshire Blvd., Suite 25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760-3700 Fax: (213) 383-2515 email: howardree@gmail.com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이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outour.com 213-388-4000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eng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A, CA 90010 ddsp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포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291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농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중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내)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172 Main Steet Fort Lee, NJ 07024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내과

뉴저지 왕내과 Kyu S. WANG, M.D. 왕규성 Tel. (201) 224-6800 1033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oor 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재진 심장내과 Rhee, JaiJeen, M.D.F.A.C.C. 이재진 (의대 58) Tel. (718) 426-6464 37-25 75th Street, Jackson Heights, NY 11372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민재홍 소아과 Jae Hong Min, M.D., P.C. 민재홍 Tel. (718) 353-5300 34-09 Murray St #111,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중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중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산부인과

정산부인과 전문의 Joseph Chong, M.D.F.A.C.O.G. 정조섭 Tel. (201) 461-5770 44 Sylvan Ave. #2-A, Englewood Cliffs, N.J 07632

알러지

이혁업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업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치과

계동휘종합치과(잇몸수술 전문의) Wayne Kye D.D.S, M.S 계동휘 (치대 67) Tel.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t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o.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광고문의: (484)344-5500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Table with 4 columns: 성명, 주소, 업소이름, 전화. Fields include: 단과대학 및 대학원, 전 주소, 업소 주소, Email.

Table with 4 columns: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일반광고, 특별후원금. Includes checkboxes for donation amounts and special contributions like Education and Charity.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Cardholder's Name : Date : Pay to order of 'SNUAA-USA'

Address No. Only Zip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귌)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감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승영(문) · 김은중(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욱(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
고문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일경(가정)	
총무국장	심희진(음) · 사업국장
조직국장	백옥자(음) · 심외국장
재무국장	이상숙(가정) · 특별사업국장
IT개발위원장	김원영(미) · 사무장
(Webmaster)	이제니
홍보 : 발행인 손재욱(가정)	
편집위원장	김정현(공) · 주필
편집위원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 이상숙(가정) ·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지재원(사) · 한정민(농) ·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이혜림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 민경훈(법) · 유재중(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원(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종민(공) · 이강원(공) · 이민연(법) · 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607	byeongk@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북가주 SANFRANCISCO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중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NY/NJ/CT	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이대영(문리 64)	516-770-0070	dyldy89@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정태영(문리 71)	978,908,0196	chungty1@snu.ac.kr	Jul-Jun
	차기회장				
달라스 LA/DALLAS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4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황호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최홍수(자연대 87)	858,342,0245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시카고 IL/IN/WI/MI	회장	정승규(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Jan-Dec
	차기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공대 56)	520,271,2601	youn_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크아 ALASKA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상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자연 82)	703,785,8467	saekewo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h_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mrmstf@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강창석(의대 73)	770,825,1004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이상엽(공대 85)	770,622,5163	duluthcpas2@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최정웅(공대 64)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Jul-Jun
	부회장	박혜린(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윤기향(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sbaek2@utk.edu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WA/MO/KS/NE/AR/OK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mpcsg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장영준(농대 83)	913,544,2933	yjodds@gmail.com	
휴스턴 HOUSTON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중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대표: 이승훈 (상대 74)

Tel: 562-633-7400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Dr. Paul. Kim, D.V.M
김기택 (수의대 81)

Phone 201-814-0095
Grooming 201-814-1377

Office Hours by Appointment
Mon - Fri. 9:00~7:00
Sat. 9:00~2:00

199 Main Sreet, Ridgefield Park, NJ 07660

50일간의 세계여행 기념 전시회

(MEMORIES OF A 50-DAY WORLD TOUR)

"동에서 서쪽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우리에게 보여진 세상은 60여년 인생동안 인식되었던 세상 그 이상이었다"
- 신규원 (상대 73)

- Artist: Kyung Shin (조경희, 가정대 72)
- Memories of a 50-day world tour (세계여행 기념 전시회)
- 장소: Riverside Gallery, One Riverside Sq. Suite 201 Hackensack, NJ 07601
- 기간: October 22~31, 2016 / Reception: Oct 22, 4pm

문의: 312-841-2983 shin.kyung@gmail.com
웹사이트: www.shinkyung.wix.com/artworks

서울대 동문 10% 할인

한자이긴 하지만 가까운 당신

기질호해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詩: 골프 인생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뺏으시고
백 수원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 공에 정성 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2. 예의를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가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 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 동네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 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 것 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 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일세.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 보면 청개구리 "공" 이란놈
곰배팔이 팽이 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 맞은 두꺼비기 웅덩이로 뛰어 들 듯
돌 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 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 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 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 하소.

4. 과욕은 금물

핸들을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 여덟개 기회 있고 일흔두번 기대 있네
조금 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놈 자~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 드니 뺨크 뺨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 하나!
전 홀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 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 아닌 "엄보"라네.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 거리 남은 거리
수학 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 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 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력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욱 하고 내려 치면
공이란 놈 날아가서 그린 위에 꽂인다네.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 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밭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 놀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 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 보세
자기 것을 계산 하고 내가 나를 감독 하고
백에라도 단 한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엔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7.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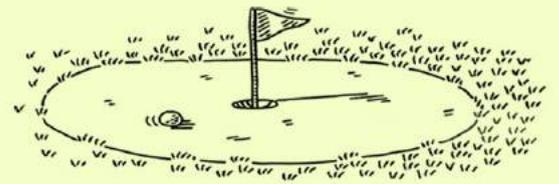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한 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 이뤄
기적 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흠일원은 못할 소냐?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 여덟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님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 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뚜~기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듯이 없어 졌네.

9. 가정

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 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 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 백년을 살아 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 마소!
천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 새끼
저녁 밥상 차려 놓고 아빠 오기 기다리네.



NEW YORK GOLF CENTER

www.nygolfcenter.com

HERALD SQUARE



131 We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564.2255

GRAND CENTRAL



100 Park Avenue (Entrance on 40th)
New York NY 10017
Tel: 212.564.0078

CHELSEA PIERS



59 Chelsea Piers
New York NY 10011
TEL: 212.242.8899



詩人: 이진구(李典九)
1964년 서울대 농대 졸업
뉴욕골프센터 그룹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9대 회장
미동부 한국문인협회 14대 회장

